



與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野도 “조사 수용”

민주, 우상호·김한정 등 명단 공개... 비례 윤미향·양이원영 ‘출당’
국힘 “감사원서 전원 재조사” 역공... 헌정 사상 첫 전수조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원 전원 공식 전수조사의 첫발을 떼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12명의 의원 명단도 공개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은 김주영(조선·경기 김포갑), 김희재(조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조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조선·비례) 의원 등 4명이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의원은 총 3명으로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조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은 양이원영(조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조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조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다.
이들 의원은 본인 소명 없이 결정한 당 결

정에 반발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매한 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미향 의원은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미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로 사실상 ‘셀프조사’, ‘면피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도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코인·주식 물렸다면 “미술품 공구해요”

MZ 픽 ‘아트테크’

수십억대 예술품 분할 소유 2040 새로운 투자수단 부상

직장인 김모(32)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삼정동과 인사동 인근의 갤러리를 돌아본다. 관심 있는 작가의 그림을 사기 위해 월급의 일부를 모으고, 틈틈이 미술 공부도 한다.
김 씨는 요즘 인기 있는 작가가 누구인지, 갤러리마다 어떤 작품이 가장 잘 팔리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목돈을 들일 생각은 없다.
김 씨는 수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유명 작가의 그림을 소액 투자자들과 ‘공동 구매’하기로 결심했다. ▶관련기사 5면
‘아트테크’(Art-Tech)가 뜨고 있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다. 중심엔 ‘MZ세대’가 있다. 세계 최대아트페어 주관사인 아트바젤(Art Basel)과 후원사인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발간한 ‘아트마켓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중국, 홍콩 등 10개국 고액자산가 컬렉터 2596명 중 56%가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술 경매 시장의 대표사인 서울옥션이 올해 1분기 진행한 온라인 경매에서도 전체 낙찰자 비율 중 MZ세대가 11%를 차지했다.
최근 MZ세대가 미술 시장에서 급부상한 주된 이유로 ‘연택트’가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미술관, 갤러리, 경매장이 닫히면서 미술의 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이는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에게 기회였다. 온라인 경매, 갤러리들의 온라인 전시, 아트페어의 온라인 뷰잉 룸 등 미술 시장의 기술 발달이 MZ세대의 진입을 도왔다. 자금 부담이 덜한 공동 구매 방식과 절세 혜택 등은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미술 투자 플랫폼 테사 관계자는 8일 “전체 회원 중 MZ세대가 50%에 달한다”며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도 50~60%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MZ세대들은 제2의 대체 투자방법으로 미술 투자를 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모 완판 기간이 초기엔 3~4개월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분 만에 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7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사진)에 대한 5억 원 어치의 지분이 1시간 24분만에 완판됐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이후 해명하는 김한정·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상호(오른쪽)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각각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차 노조 “2년 무급휴직·無파업” 자구안 통과

“생존의지 천명” 52.1% 찬성 가결 “재무구조 개선, 매각 절차 속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생존을 위해 자구안을 받아들였다. 생산직 절반이 최대 2년간 무급휴직하고, 경영 정상화 이전에는 파업도 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8일 쌍용차에 따르면 노조는 7~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구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3224명이 참여했고, 이 중 52.1%(1681명)가 찬성표를 던지며 자구안은 최종 가결됐다.
자구안은 1년간 기술직(생산직) 50%, 사무직 30%가 무급휴직하고, 1년 후 경영 상황을 고려해 무급휴직 유지 여부를 재협의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2년간 무급

휴직을 진행하는 것이다.
2019년 합의한 임금 삭감과 복지 중단 기간도 2023년 6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임원 임금도 이달부터 20% 더 삭감해 36%를 줄인다.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임금 삭감분은 회생절차가 끝난 뒤 차례로 지급하고, 부품센터 등 부동산 4곳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각한 후 빌려 쓰는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됐다.
임금협상을 제외한 단체협상 변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경영정상화 때까지 임금 인상을 자제하며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체행동권을 스스로 내려놨던 점에서 전향적인 선택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이번 자구안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

한의 생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자구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자를 유치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법원이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매각 주관사 선정을 전날 허가함에 따라 주관사는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자구안이 가결됐다해도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노사 모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자구안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상당했고 투표 찬성률도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만큼, 내부 반발 수습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유창욱 기자 woogi@

알뜰폰 “최소 사용료, KT만 더 낸다”

업계 반발에 과기부 “의무 제공 사업자 아니지만 협의 가능”

알뜰폰(MVNO) 업계가 이동통신 3사 중 KT의 종량 대가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타사와 달리 KT만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최소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주장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알뜰폰 업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망 도매대가를 낼 때 종량형에서 최소 사용료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 KT만 방식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업계는 KT만 다른 방식을 고수해 피해가 크며 정부에 적용방식 동일화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가 망 대가를 산정할 때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수익 배분형으로, 알뜰폰업체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면 이동통신사에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구조다. 예컨대 이동통신사의 월 5만5000원짜리 5G 요금제에 수익배분형 60%를 적용하면, 알뜰폰 업체는 이동통신사에 회선당 3만 3000원을 내고 차액을 쟁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망을 쓴 만큼 이용료를 내는 종량형이다. 이 방식이 최소 사용료 개념이 적용된다. 최소 사용료는 이동통신사 모두 1500원이다. 망 제공 의무사업자인 SKT가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책정한 도매대가는 음성 10.61원/분, 데이터 2.28원/MB이다. 가입자가 음성 1분, 데이터 1MB를 사용해 13원어치를 썼다고 해도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회선당 사용료는 최소 1500원이라는 뜻이다.
SKT와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는 고객이 데이터 1000원어치, 음성 400원어치를 쓰면 최소 사용료 1500원 이하를 쓴 셈이어서 1500원만 이동통신사에 낸다. 반면 KT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는 데이터와 음성 중 택 1을 해야 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사업자가 데이터에 최소 사용료를 적용하겠다고 계약한 경우 이용자가 데이터 400원, 음성 1000원어치를 쓰면 결국 2500원을 내야 한다. KT는 당분간 현 정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14면에 계속 이진민 기자 aaaa3469@

“우주관광 꿈이 현실로” 베이조스 내달 여행길 오른다

블루오리진 유인 캡슐 직접 탑승 티켓 1장 136개국 5200명 입찰 우주관광 예약 벌써부터 대항행 호텔 건설 이어 영화 촬영 계획

“5살 때부터 우주여행을 꿈꿔 왔습니다. 7월 20일 내 형제와 함께 우주로 갈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모험을,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대사가 아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우주 탐사업체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에 직접 탑승해 다음 달 우주여행을 떠날 것이라면서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베이조스 CEO는 다음 달 20일 블루 오리진의 첫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의 유인 캡슐을 타고 남동생 마크와 함께 여행길에 오를 예정이다. 베이조스 CEO의 블루 오리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스페이스X’,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버진갤럭시에 이

주요 기업 우주 개발 현황	
블루오리진	- 2000년 민간인 대상 우주여행 목적으로 설립 - 2021년 4월 15번째로 ‘뉴 셰퍼드’ 로켓 시험 비행 성공 - 2021년 7월 민간인 승객을 태운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 발사 예정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설립자, 동생과 함께 우주 관광, 다른 민간인 승객 입찰 진행)
스페이스X	- 2002년 인류의 화성 정착 목표로 설립 - 2021년 5월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 시제품 시험 발사 성공 - 2023년 최초 달 여행 · 2050년 100만 명 화성 이주 목표
버진갤럭시	- 2004년 민간 우주여행 사업 목표로 설립 - 2021년 5월 유인 우주선 ‘유니타’ 세 번째 시험 비행 성공 - 2022년부터 민간인 대상 우주 관광 서비스 출시
오비털어셈블리	- 2027년까지 우주 호텔 ‘보이저 스테이션(Voyager Station)’ 건설 계획
엑시옵스페이스	- 2022년 1월 이전 민간 우주 여행객 3명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낼 계획



제프 베이조스 인스타그램 캡처

르기까지 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라는 신(新) 시장 개척을 두고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처음 우주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치부됐던 민간 우주여행, 화성 이주 등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 인류가 달에 첫 발자국을 찍은 지 반세기가 흐른 지금,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 관광 시대가 빠른 속도로 성큼

다가오는 것이다. 꿈이 현실화하면서 우주의 상업적 가치도 인정받는 추세다. 캐나다 시장조사기관 캐너코드의 켄 허버트 애널리스트는 우주 관광 시장이 2030년에는 80억 달러(8조 92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산업 전체 시장 규모가 2017년 324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1조 1000억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미 꿈에 그리던 우주여행이 점차 피부로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이미 ‘우주 관광 티켓’을 손에 쥐었거나, 이를 구매하기 위해 물려두고 있다. 블루 오리진은 최근 7월 20일 발사 예정인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 유인 캡슐의 탑승권을 공개입찰했다. 결과는 ‘대항행’이었다. 좌석 1개에 대한 1차 입찰에 무려 136개국의 5200여 명이 몰렸으며, 2차 입찰가는 140만 달러에서 시작해 최고 240만 달러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인 버진갤럭시는 현재까지 승객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만~25만 달러 가격에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18년 일본의 마에자와 유사쿠 조조(ZOZO) 창업자를 2023년의 달 여행 프로젝트에 참여할 세계 첫 민간인으로 선발했다.

우주 시장을 향한 신(新) 골드러시에 나선 것은 이들 세 기업뿐만이 아니다. 오비털어셈블리는 우주에 호텔을 건설하겠다는 대담한 제안을 내놨다. 2025년 착공을 시작해 2027년 손님을 받게 된다는 목표다. ‘보이저 스테이션(Voyager Station)’이라는 이름이 붙은 호텔은 우주 공간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빠르게 회전, 지구의 6분의 1 수준인 인공 중력을 만들어 내 인간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엑시옵스페이스는 내년 1월 이전에 민간 우주 여행객 3명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5월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와 함께 ISS에서 영화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내달 출범 ‘신한라이프’, 인사·업무 방식 두고 진통

‘해피콜 업무’ 잡포스팅 공지에 “강제 이동 없이 자발적 인사”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 법인 신한라이프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직원 인사에 따른 잇단 잡음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한 임원 인사에서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에서 고른 인재 발탁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사제도와 업무 형태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양사 직원 간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화학적 결합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이달 초 신한생명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신한라이프 해피콜 업무에 대한 잡포스팅(Job Posting·사

내 채용공고)을 공지했다. 신한생명의 경우 해피콜 업무는 기존에도 사무직군이 담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오렌지라이프는 이 업무를 외부업체에 도급을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사는 합병 이후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 고용 형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급 체제로 운영하던 오렌지라이프 해피콜 업무를 신한생명 사무직군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공고로 내부적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잡포스팅으로 신한생명 사무직 사이에선 오렌지라이프에서 도급을 맡기

던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라이프는 신한생명처럼 채용 시 전문직(영업관리직)과 사무직을 분리하지 않고 단일 직군으로 선발하고 있어 사무직이란 직군이 없다. 결국 오렌지라이프에서 신한생명의 사무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콜센터 업무에서 제외된 채 신한생명의 사무직만이 해피콜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합병 작업 과정에서 오렌지라이프의 인사 체계를 신한생명처럼 전문직과 사무직으로 분리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동일 업무를 하는 양사의 직원들 간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

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측은 동일 업무에 대해 동일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해피콜 업무에 대한 잡포스팅 공고가 나온 것으로 강제 이동은 없는 자발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강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잡포스팅을 내고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되는 식”이라며 “오렌지라이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 법인인 신한라이프의 업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피콜) 업무가 오렌지라이프엔 없었기 때문에 나온 오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선 다음 달 1일 예정된 신한라이프 출범 이후 대규모 조직이 되는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합병 개요

종속법인	신한생명 (합병 이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소멸법인	오렌지라이프
합병계약 및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2020년 12월 23일
합병기일	2021년 7월 1일

만큼 연말까지 소폭의 인력 조정이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희망퇴직 등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신한생명에서 상시 희망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폭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신한생명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37개월치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시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상 상시 희망퇴직 신청은 10~11월경 받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능력티켓으로 HRD 여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與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정면돌파

국회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신경전

민주 “무혐의 땀 복당” 조건에도 일부 의원 불복, 진통 예상
국힘 “권익위 셀프조사 못믿겠다” 민주 “시간 끌기용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발표에 따라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 소속 의원 12명과 관련해 ‘전원 탈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의혹의 경중, 사실 여부, 소명 절차를 건너뛴 조치로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강경조치는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같은 강경 조치에 국민의힘은 8일 감사원에 국회의원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맡기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결과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통한 조사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전수조

사를 맡기자고 역공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어느 기관에 맡길지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내세워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알박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지만 이들 의원이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희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김수홍 양이원영 오영훈 우상호 윤재갑

민주당은 이들이 탈당 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바로 복당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고용진 당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께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12명 중 윤미향 의원 등 2명에 대해선 출당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비례대표 2명을 위해 배려한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비례대표의 경우 스스로 당을 떠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출당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대표도 당의 권고 결정 직후 “징계는 출당 조치가 징계이고, 탈당을 권유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의혹이 없는 경우 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집권 5년의 성과가 부동산으로 초토화됐고, 이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도리어 국민 눈높이보다 과한 조치가 정당”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의원 개인으로서 억울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것이고 부동산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로서 탈당 및 출당 조치를 우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투기자는 정치권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향후 국회 의원 선거에서 부동산 투기 전력이 약점이 될 수 있어 각 당 후보자 등록 시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차 노사 “살아남자” 뜻 모았지만 운영자금·구조조정 등 숙제 ‘수두룩’

이달 말 법원 결정 ‘촉각’

쌍용자동차 자구 계획안 가결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뚜렷한 생존의 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최종 매각까지 ‘인적 구조조정’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차 노사는 ‘2년 무급휴직’ 세부 절차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생산직 50%의 2년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절반이 2년 동안 집에서 쉬는 게 아니다. 예컨대, 주간조(50%)가 7월에 근무하면 야간조(50%)는 이때 휴직한다. 거꾸로 8월에 야간조가 투입되면 7월에 근무한 주간조가 쉬는 형태다. 사무직 근로자는 30%가 무급휴직에 나선다. 2개월 근무하고 이후 1개월 무급휴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년 무급휴직을 포함한 자구안에 대해 조합원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자구안이 통과됐다고 무조건 회생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가결된 자구안을 법원에 낸 뒤에도 숨겨져 회생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 법원이 위임한 조사위원회가 쌍용차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마감 기한은 6월 말. 법원이 이를 근거로 쌍용차의 청산 또는 매각을 결정한다. 자구안이 가결로 통과됐어도 법원이 ‘존속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그 길로 쌍용차는 파산이다.

법원의 회생 결정이 나오면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작업이 시작된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올 4분기까지 매각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까지 어떻게 운영자금을 확보

쌍용차 자구안 주요 내용

- 무급 휴직 2년
- 임금 삭감 및 복지 중단 2년 연장
- 임원 임금 36% 삭감
- 단체협약 교섭 주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생산 대응
- 경영 정상화까지 무파업
- 유류자산 추가 매각

쌍용차

하느냐도 관건이다. 남은 자산을 더 팔아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천안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국 주요 사업장 4곳이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이후 유동자금을 빌려 쓰는 방안이 자구안에 포함됐다.

최종 매각까지 끊임없이 제기될 ‘인적 구조조정’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쌍용차의 작년 매출은 2조 9000억 원 수준, 근로자는 4800명에 달한다. 매출 3조 4000억 원을 낸 르노삼성 임직원은 지난해 기준 약 4000명. 지금은 희망퇴직을 거쳐 약 3500명까지 줄었다. 쌍용차 근로자가 르노삼성보다 약 1300명이나 많은 셈이다. 2년 무급휴직이 끝나면 다시금 인건비 부담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정년퇴직 등을 포함한 자연감소 인원도 연평균 130명에 불과하다.

채권단도 쌍용차 노조의 이번 결정이 곧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구조조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단과 논의되는 것이기에 인력감축이 꼭 전제되지 않아도 회생 가능성이 확보할 수 있지만, 법정관리는 그렇지 않다”며 “법정관리 종료는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 자구안을 엄밀하게 보기에 졸업 여부도 단정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2021-0033, 2021.6.3.)

“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세요!!

”

주택연금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고 유휴공간 임대도 가능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시작합니다!

(단위: 만원, 2021.2.1일 기준)

주택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55세	16	48	80	112	144
60세	21	63	106	148	191
65세	25	76	126	177	228
70세	30	92	153	215	267
75세	37	113	189	264	289
80세	47	143	239	322	322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가입 대상

나 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주택보유: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내 1주택 팔면 가능
-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대상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지사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688-8114

손경식 “청년 4명 중 1명 사실상 실업, 낡은 노동법 바꾸자”

ILO 노사정 총회 연설...고용위기, 투자로 극복 제언
“국제노동 협약 발효 1년앞,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필요”

손경식(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각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연

설했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4000여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주요 의제로 진행되고 있다.

손 회장은 연설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

다”며 “한국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이며 새로 생겨난 일자리마저도 임시·일용직과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의 방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자유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팬데믹 피해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신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손 회장은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비준 기탁한 3개 ILO 핵심협약(△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발효까지 남은 1년 동안 기존의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영계도 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기업	백신	임상단계	개발 목표	개발 방식
제넥신	GX-19N	2a상	7월 중간결과 발표	DNA
SK바이오사이언스	GBP510	1/2상	6월 3상 IND 제출	합성항원
	NBP2001	1상	-	
유바이오로직스	유코백-19	1/2상	9월초 2상 결과 발표	합성항원
셀리드	AdCLD-CoV19	2a상	8월 2상 완료	바이러스벡터
진원생명과학	GLS-5310	1/2a상	연말 3상 진입	DNA



8일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설치된 수성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산 백신, 마지막 임상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 내달 '3상' 셀리드 '비교임상 수월' 전망

우리 기술로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 임상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다. K백신의 탄생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이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필두로 하반기 국내 임상 3상을 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큰 백신을 선구매하겠다”고 공언했다.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일정 물량을 사들여 임상 실패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업계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교임상 도입과 성공 여부에 상관없는 정부의 구매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최근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선구매까지 약속하면서 국내 백신 개발

사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워싱턴대학 하워드디자인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합성항원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3상 임상 시험계획(IND)을 이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외 규제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조기 개발을 위한 신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르면 7월 3상 진입도 가능하다.

GBP510은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으로부터 2369억 원(2억1010만 달러)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 후보물질은 CEPI의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이기도 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법정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와 개발·허가를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백신 선구매 지원도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국내에서는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개발 중인 백신을 이미 허가된 백신과 동일한 면역원성 지표 등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에 진입

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 5곳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리드, 제넥신은 현재 임상 2상에 진입했다.

셀리드는 8월 중 임상 2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셀리드가 개발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며, 얀센 백신처럼 1회 접종으로 효력을 낸다. 비교 가능한 제품군이 2종이던 점에서 다른 후보물질들보다 비교임상이 수월할 전망이다.

합성항원 방식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백신은 노바백스 백신과 비교해야 하지만, 아직 국내는 물론 미국 식품의약품(FDA) 등 주요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바이오로직스는 9월 초 ‘유코백-19’의 2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되면 임상 3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원생명과학은 연말까지 임상 3상 진입이 목표다.

코로나19 DNA백신 ‘GX-19N’을 개발 중인 제넥신은 7월중 2a상의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넥신은 임상 3상을 다국가에서 추진하기로 결정, 인도네시아 1000명을 시작으로 총 3만 명을 모집한다. 유혜은 기자 euna@

비수도권 6개 지역 1학기 전면등교

강원·경북·대구·세종·전남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현실화하자 비수도권에서 1학기 중 전면 등교를 시행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강원·경북·대구·세종·전남·전북 등 6개 지역이 1학기 전면 등교를 시작했거나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의 2학기 유치원,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 방침보다 빠른 것이다. 교육부는 2학기 시작 전에 모든 교직원들이 1·2차 접종까지 완료해 면역력 확보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이달 중순 공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6개 지역 외에 1~2개 지자체가 2학기 전면 등교 전 선제적으로 1학기 전면 등교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지역 초·중·고는 7월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교와 원격수업, 부분 등교 등을 반복한 지 15개월 만이다. 백신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확진자 발생이 적어 등교 수업을 확대했다고 전남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강원 지역도 같은 날 단계적인 전면 등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강원 지역은 전체 학교의 81.7%에 해당하는 학생 수 400명 이하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행 중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14일부터 전교생 600명 이하로(92.6% 전면 등교), 24일부터는 800명 이하로(96.5% 전면 등교) 확대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세종·전북·경북 지역은 전남보다 앞서 전면 등교를 실시했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이 전면 등교를 앞당기고 있는 것은 학력 격차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방지와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사 운영 정상화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여름방학 전에 전면 등교를 해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정부 일자리 3조 들였지만 고용 유지율 37% 불과

내년 민간 일자리 지원으로 유턴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97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이들 일자리의 고용유지율이 고작 37%에 불과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재정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33조6000억 원(추경 등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2조404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년보다 많은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으로 총 671만 명, 22만5000개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작년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발(發) 노동시장 충격이 주요국에 비해 덜했다고 평가했다.



어두운 면도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2조9451억 원(전년 대비 8672억 원 증가)을 투입해 97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2019년 51.8%에서 2020년 57.3%로 늘었지만 고용유지율은 51.3%에서 37.8%로 떨어졌다. 이는 직접 일자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과 일 경험 제공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친다는 것을 방증한다. 직접 일자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단기적 일자리로 불린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의 한계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직접 일자리 참여자들의 민간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중이서류 방식으로 2조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 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용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5년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1년 평균수익률 20% 취득·보유세도 없어

세제 혜택에 새 투자처로

소액 투자로 유명작품 소유

올해 미술품 공동투자 34억

MZ세대가 90% 이상 차지

양도가 6000만원 이하 비과세

세법개정 따라 최고세율 20%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1만 원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요즘 뜨는 '아트테크'(Art-Tech)를 통해 가능하다.

20~40대 'MZ세대'가 재테크에 쏠려 있다. '올로(YOLO·인생은 한 번뿐)'를 외치며 소비를 행복 1순위로 내세우던 이들의 관심이 투자로 옮겨졌다. 월급만으론 성공이 힘들다는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투자 대상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학 개미의 관심은 가상화폐에 이어 미술 투자에 쏠리고 있다.

◇펀딩, 공동 구매의 묘미=아트테크는 소액으로도 고가 작품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n분의 1'로 나눠 조각투자한 뒤 이를 팔아 수익을 내는 공동 구매를 이용하면 된다.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업체가 펀딩을 모집하면 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한 작품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6일 미술품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트앤가이드는 올해 미술품 공동투자 규모를 총 34억4800만 원으로 집계했다. 아트앤가이드는 1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등급 기준 40대 비중이 약 37%로 가장 많고, 30대와 20대가 각각 29%, 25%라고 했다. MZ세대가 90% 이상인 셈이다.

최근 아트앤가이드가 펀딩한 김환기

화백의 'Untitled 10-V-68 # 19'는 1분 만에 1억5000만 원을 모았다. 이우환 화백의 1983년작 '점으로부터'(From Point)는 268명이 나눠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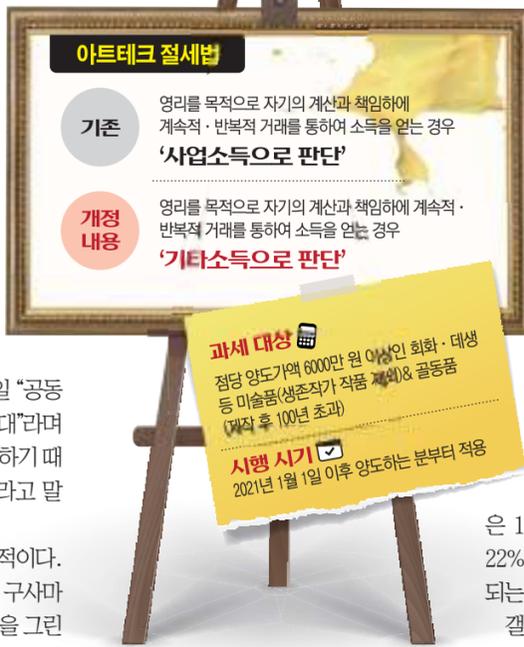
앤디 워홀·키스 해링·데이비드 호크니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공동 구매 펀딩에 내놓은 피카프로젝트 역시 상당수의 작품을 완판시켰다.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는 8일 "공동 구매 참여자의 대부분이 MZ세대"라며 "1년 기준 평균수익률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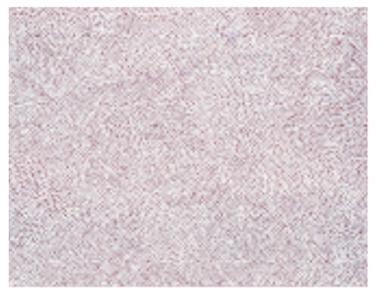
MZ세대는 고액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3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일본 거장 구사마 야요이가 무수한 선으로 그물 형상을 그린 2010년작 'Infinity Nets'(GKSG)는 시작가 13억 원의 2배에 가까운 23억 원에 팔렸는데 낙찰자는 MZ세대였다.

◇아트테크=세테크... 절세의 매력=아트테크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 혜택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미술품 경매가 곧 재테크란 공식이 자리 잡았다. 미술품 양도차익이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세율 20%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개인이 경매로 이익을 얻으면 낼 세금이 대폭 줄었다. 최고 42%에 달했던 세율이 20%로 고정됐다.

비과세·감면은 그나마 남은 세금 부담까지 상쇄해 준다. 작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하이거나 국내 생존작가는 얼마에 팔든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이면 필요 경비율을 80%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익으로 보는 건 나머지 20%밖에 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



데이비드 호크니 'My Window, 'No. 778', 17th April 2011'(2011). 사진제공 피카프로젝트



구사마 야요이 'Infinity Nets(GKSG)'. 사진제공 서울옥션

요 경비율을 90%까지 본다.

예컨대 10년 넘게 갖고 있던 작품을 팔았을 때 실제 양도차익은 1억 원이지만 90%가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차

은 1000만 원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과세율을 고려하면 220만 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갤러리아트컨티뉴의 엄진성 대표는 "주식을 해도 증권 거래세, 부동산·자동차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미술품은 내지 않아도 된다"며 "5년, 10년을 갖고 있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트테크가 주목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트테크가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엄 대표는 "세금 혜택은 좋지만 일반적으로 미술품 투자로 몇천만 원 이상 벌기 위해선 고가의 미술품을 사야 하기 때문에 작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며 "남들이 번다고 볼나방처럼 따라붙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엄 대표는 아트테크 초보들이 구매하기 좋은 것으로 몇백만 원 선에 나온 유명 작가의 판화나 신진 작가의 작품을 추천했다. 그는 "이 작품들을 경매회사를 통해 팔면 10만~2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비싼 그림, 보관은 어떻게?

실물 아닌 소유권 구매, 공간 제약 없어

펀딩 주최사서 관리감독 담당 블록체인 통해 소유권 관리도

'아트테크'(Art-Tech)는 미술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훼손되면 그만큼 가치도 줄어든다. 까다로운 보존 관리가 필수다.

조달청의 '정부미술품관리매뉴얼'에 따르면 미술품 잘 보존하기 위해 온도는 18℃±2, 습도는 상대습도 55%±5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미술품 보존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되는 환경 조건이기 때문이다. 빛에 노출되는 시간도 줄여야 한다. 작품이 직사광선(태양광)이나 200룩스(Lux) 이상의 조명에 직접 노출되면 안 된다.

미술품은 대기오염에도 취약하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미술품이 피해를 입는 일도 있다. 신축 건축물 안의 공기 중에 있는 알칼리성 미립자는 유화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축 건물에선 2~3년간 전시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신 관리해 줄 보관 업체가 있지만 발품을 팔아야 하고 별도의 미술품 보험까지 가입해야 한다.

집에만 묵혀 두는 게 아까우면 그림으로 다른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믿을 만한 갤러리에 그림을 맡겨 '대여료'를 받는 것이다. 갤러리는 고객이 산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거나 유명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드라마에 소품으로 협찬하

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소장자에게 지급한다.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공동 구매'를 한 경우 실물이 아닌 분할 소유권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관 걱정도 줄어든다. 최근 떠오른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NFT를 구매하면 원본 작품이 아닌 디지털 작품으로 전환된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장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는 8일 "공동 구매의 장점은 작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펀딩 회사에서 하고 작품 재판매까지 담당한다는 점"이라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판매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NFT 작품을 비롯해 블록체인 저장 기술로 안전하게 소유권을 관리할 수도 있다. 미술품 거래 플랫폼 데사는 수많은 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 특허를 갖고 있다. 피카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만든 미술품 전용 코인 '피카'를 올해 1월 업비트에 상장시켰다.

송 대표는 "미술품은 '보안'이 중요한데 작품에 대한 고요함을 갖고 있으면 본인 것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증명되니 안정적이다"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송 과정에서 드는 몇천 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ksh@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경기악화에 이직 줄고 10명 중 3명 몸값 '뚝'

〈아직자〉

통계청 '2019년 일자리 이동'

30세 미만 청년 5명중 1명 옮겨 中企 → 대기업은 10.2% 불과 작년 코로나 여파 더 줄었을 듯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 악화로 2019년에 이직보다는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직장인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일자리 이동자는 387만6000명으로 이동률은 15.9%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394만4000명)과 비교해 6만9000명(1.7%) 감소한 것이다. 이동률도 전년(16.5%)과 비교해 0.6%포인트(P) 줄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2.9%, 2019년 2.0%, 2020년 -1.0%로 하향 추세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이동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직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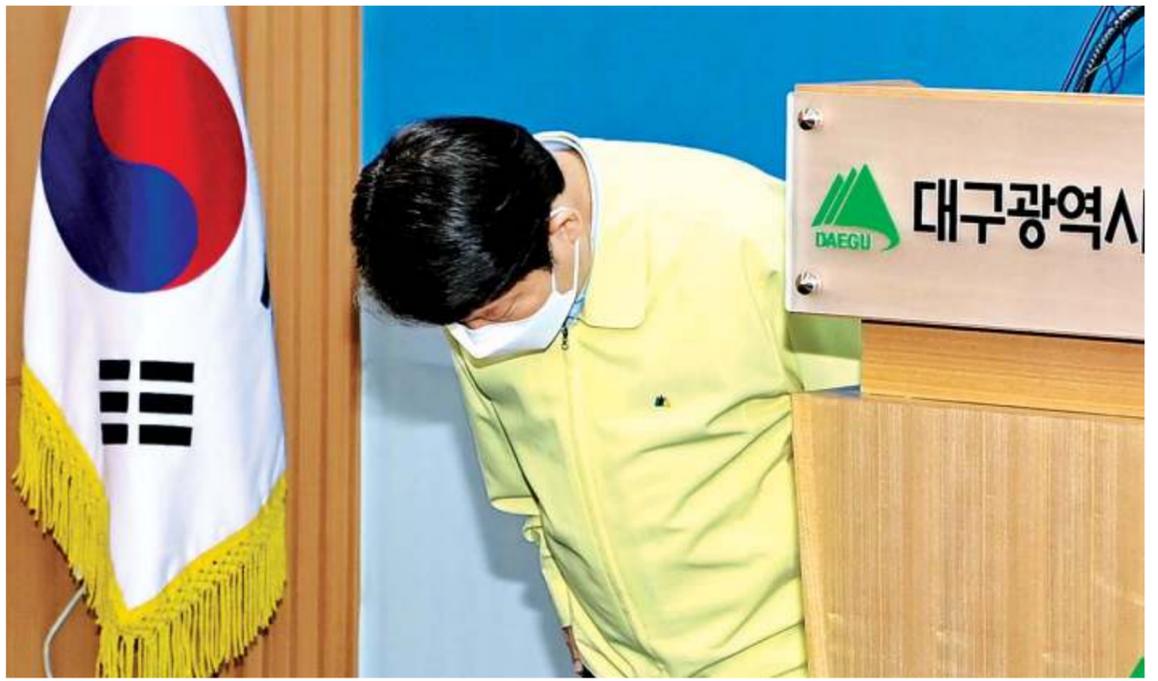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이동률은 30세 미만이 20.9%로 가장 높았고 50대(15.2%), 30대(14.9%) 순이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

장은 "30대 미만은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안정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동률이 높다"고 밝혔다.

2019년 이동자 가운데 75.5%는 중소기업 근로자였다. 대기업은 11.1%에 그쳤다. 대기업에서 이동한 57.8%가 중소기업으로 옮겨 전년(57.3%)보다 소폭 늘었다. 중소기업에서는 10.2%만 대기업으로 이동했다. 그나마 전년(9.4%)보다 약간 늘었다. 종사상 지위 간 일자리 이동은 임금 근로에서 6.0%가 비임금 근로로 이동해 전년(5.9%)과 비교해 소폭 늘었고 비임금 근로의 70.8%는 임금 근로로 이동, 전년(77.9%)보다 줄었다. 산업별 일자리 이동은 건설업이 35.0%로 가장 높았고 사업시설·지원업(27.1%), 숙박·음식점업(17.6%), 보건·사회복지업(16.5%) 순이었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67.5%가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31.7%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증가로의 이동은 30세 미만 근로자가 72.2%로 가장 높았고 30대(68.2%), 40대(66.1%), 60세 이상(64.3%) 순이었다. 임금근로자의 50.4%는 전년 대비 임금 구간이 같았고 34.1%는 임금 구간이 상승, 15.5%가 임금 구간이 하락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백신 구매 주선 논란' 고개 숙인 권영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대구시청에서 화이자 백신 구매 주선 논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사진제공 대구시청

'세수 풍년' 부동산·주식 덕에 4월까지 추가세수 32조 더 걷혀 文 "추경 편성해 온국민이 온기 누리게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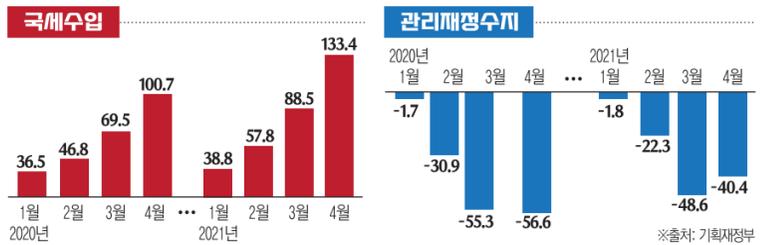
양극화 해소·일자리 회복 우선 주문 '전국민 재난지원금' 與 요구 힘실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점 재정지출 분야로 양극화 해소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경 간 갈등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고려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20조 원 안팎의 편성을 검토 중이다. 추가 세수의 일부는 국제 상황에 할

국세수입·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전체누계



용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관건은 추가 세수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정지원(납부유예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 원)와 상속세 등 우발세수 증가(2조 원)를 고려해도 뚜렷한 개선세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 상반기에 받을 세수가 하반기로 많이 지연됐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8조2000억 원, 부가세는 4조9000억 원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3조9000억 원, 2조 원 늘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1조4000억 원) 등으로 2조4000억 원 늘고,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사회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큰 폭(1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16조2000억 원 늘었다. 수입 증대에 힘입어 재정수지도 대폭 개선됐다. 1~4월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6조3000억 원, 4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해 적자폭이 각각 27조 원, 16조1000억 원 축소됐다.

부동산·주식시장은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커 정확한 세수 예측은 어렵지만, 4월까지 상황과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30조 원 이상 초과 세수 발생이 예상된다. 추경 규모의 적절성은 실제 발생하는 추가 세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일환 기자 whan@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문승욱 "K배터리 전략 내달 발표"

올 수출 사상 최대 경신 노력

문승욱(사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8일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7월 초-중순쯤에 K배터리 전략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또 탄소 중립과 관련,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는다는 원전 정책에 변화는 없고, 올해 수출 사상 최대치에 도전한다고도 했다.



성태가동하면 26기까지 늘어난다"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땅(면적)이나 인구비중에 비교해 (원전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체르노빌 등 자연재해, 인간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고 안전성 담보 없이 (원전을) 추가하는 게 맞느냐 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우리 수출이 최근(5월) 3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며 "2018년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 그 기록을 경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선 "단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외국인 투자 투자, 증설 지원 등의 방안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집적된 형태의 자동차, 반도체 업계 간 함께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신산업 투자 국내기업도 경자구역 인센티브

농축산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생산시설 국내 복귀 기업)만 받을 수 있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적용된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는 농축산 제조·가공 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은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전략산업 선정에 따라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도 조성된다. 이차 분야,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입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5일 법률 공포 후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첫 감소

작년 6억4860만톤 '2010년 수준' 저감대책·저공해차 보급 등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배출량은 2010년 수준까지 낮아졌고,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저공해차 보급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8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4860만 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6억 5630만 톤을 기록한 뒤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하면서 1990년 통계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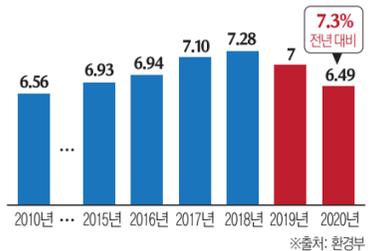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최저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와 산업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각각 7.8%, 7.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량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른 석탄 발전량 감소와 신재생 발전량 증가, 총발전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00만 톤(12.4%)이 줄었다. 수송 부문에서는 유류 가격이 하락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여행·이동 자제의 영향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 정책의 효과로 배출량이 2019년 대비 410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억t) ※2019년·2020년은 잠정치



톤(4.1%) 감소했다.

산업부문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배출량도 감소했다. 업종별로 화학 350만 톤(7.6%), 철강 240만 톤(2.5%), 시멘트 220만 톤(8.9%)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서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1급수에서만 사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 물총새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천 죽당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서식

깨끗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해
SK하이닉스는 ESG 경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탄소 공개 프로젝트 물 경영 부문 대상 수상

최적의 정화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줄입니다
방류수 재활용 시스템 및 냉각탑 재이용 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역 수생태계를 지킵니다
수질 자동측정기를 통한 생태계 피해 방지

“구태정치 탈피 ‘2030’ 진정한 보수로 정권교체 이룰 것”

인터뷰 김 용 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나는 20·30세대의 한복판에 있다. 20·30세대의 지지를 이어나가 내년에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30세대에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일한 90년대생 후보이자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의 이야기를 쉽게 듣고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같은 청년인 이준석 당 대표 후보와 함께 당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청년 주거 문제, 가상자산 등 미래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만 31세인 김 후보는 5명의 후보 중 제일 어린 나이지만 지방선거와 21대 총선,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등 정치 경험만 큼은 가장 많다. 오랜 시간 정치를 경험하면서 김 후보는 “진정한 보수”에 대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90년대생이 가진

누구보다 청년 주거문제 등 공감 기후위기 미래이슈 적극 대응 자신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 가져야

어떤 유연함과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많이 어필하고 싶었다”며 “기존 보수와 조금 더 다르고 확장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가 내건 보수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환경 문제를 예로 들고 “보수가 그동안 경제성장에 몰두하다 보니 도외시했다는 인식이 있다”며 “공동체를 살리는 게 보수고, 그런 관점에서 기후변화가 30년 뒤 20·30세대에게 되게 위협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되면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주안을 두고 싶다”며 “내년에 정권교체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다.

김 후보는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인연이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30세대의 지지를 이어나가 내년에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있던 이준석 후보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함께 대구를 찾아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20·30세대, 당게는 40대까지 대변해야 하는 청년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이라며

“이들은 이준석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모든 게 다 일치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합의해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당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김 후보

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실망했던 계선배들이 정치신인들한테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며 “네거티브 작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계선배들이 말하는 경험과 경륜이라면 당연히 타파해야 하고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을 위해 김 후보는 미래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환경 문제 외에도 가상화폐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정권이 그대로 방치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걸 공감하고 문제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김 후보는 자신을 한마디로 진짜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다”며 “우리가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안 두면 우리 미래를 기성 정치인들에게 담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참여하고 직접 심판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앞줄 왼쪽 두 번째)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네 번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정세균-이광재와 묻고 답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이광재 의원 측

경선연기에 개헌론까지...反이재명 연대?

여권 1강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맞서 경쟁 주자들이 개헌과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을 내세우며 뭉치고 있다.

먼저 개헌은 이 지사가 민생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펼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 중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권력 구조가 아닌 토지공개념 확대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위헌 결정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을 짚으며 “국민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이광재 ‘4년 중임제’ 주장 이낙연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을” 與지도부, 경선연기에 신중한 입장

의 삶은 19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더 많이 노출됐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또 다른 주제는 9월로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이다. 이 지사가 홀로 예정대로 경선을 치르자는 가운데 경쟁 주자들은 모두 연

기론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과 국민의힘에 비해 일찍 선출함에 따른 흥행 부진 우려 등을 명분 삼아서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당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당과 후보들의 연석회의를 제한한 상태다. 본격적인 논쟁은 이달 중순 출범 예정인 대선기획단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신중론을 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예정대로 9월에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에서 당헌·당규를 바꿔 후보를 내면서 잡힌 ‘조변석개’ 이미지가 강한 상태”라며 “또 당헌·당규를 바꿔 경선을 연기한다면 프레임 싸움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웬만해선 무리하게 경선 일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ARS 익숙한 어르신도 모바일 ‘꾸욱’ 당대표 선거 ‘흥행’ 野 투표율도 새역사

최근 10년 최고치 넘어...11일 발표

유례 없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거 돌풍에 힘입어 투표율도 새역사를 기록 중이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익숙한 중·노년층이 대거 모바일 투표에 응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시작된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 등 32만80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대상 모바일 투표에서 8일 오후 5시 마감 기준 투표율은 36.16%(전날 합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첫날 투표율은 25.83%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최고 투표율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기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김무성 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2014년 7·14 전당대회(새누리당)로 31.7%였다. 2010년 이전 진행된 투표는 현재 방식과 달라 투표율 비교가 무의미하다. 당시에는 대의원만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투표가 진행돼 책임당원, 일반당원이 제외됐다. 2011년

7월 전당대회(홍준표 27.9%)부터 현재 체제로 바뀌었다.

이처럼 둘째 날 투표를 마감하기도 전에 최근 10년간 최고 투표율을 넘어서며 당 안팎에서는 많게는 40~50%까지도 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현재 당원 구성은 40대 이하(27.4%), 50대(30.6%), 60대 이상(42%)으로 70% 이상이 중·노년층으로 이뤄져 있다. ARS에 훨씬 더 익숙한 이들 연령층도 대거 모바일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20·30대는 15%대 미만이다.

이 같은 이유로 또 다른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만으로도 이틀간 35%대를 충분히 넘어섰다”며 “추가로 진행되는 ARS 투표까지 합하면 최대 50%는 기록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차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당원 투표는 7~10일 나흘간 진행된다. 7·8일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단은 9~10일 ARS 투표 전화를 받게 된다. 9~10일에는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당 지도부 선출은 선거인단 70%,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이 적용되며 투표 결과는 11일 오전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 잠정 결론

부동산특위 토론회서 ‘고급주택 과세’...11일 의총 통과할 듯

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 결정을 앞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 선 관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위가 지난달 의총을 통해 정리한 안은 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를 대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양도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토론회 직후 종부세에 대해 “(현행대로면) 실거주 1주택자에 과도한 집값 상승이 왔을 때 임대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40% 정도 오르는데 이게 옳은가. 1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고민한 것”이라고 특위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해야겠지만 상위 2% 안에 드는 고급주택은 과세해야 한다는 게 특위안”이라며 “부지감세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양도세와 관련한 원화 시그널 우려에 대해 현행 보유 40%와 거주 40%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보유 부분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는 민주당에서 1주택자의 경우도 양도차익이 크면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1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앞서 개편안이 좌초되면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인플레 ‘시한폭탄’ 돌고 있는데 뒷짐 진 연준”

전문가들 “경기침체 초래” 경고
1970년대 인플레 재현 우려에도
연준, 연말·연초 테이퍼링 전망
달러 가치 1년새 7% 이상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완전한 경제회복을 기다리다가 인플레이션을 방관, 결국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달러 가치도 연일 하락하며 수입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 연준이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의 경고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CNBC방송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인플레이션 ‘시한폭탄’이 돌기 시작했다고 경고하면서 그 여파가 재앙에 가까울 수 있는 데도 연준이 뒷짐을 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에 배치되는 주장인 셈이다.

도이체방크 경제분석팀은 전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시한 부양책이 실수였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데이비드 풀커츠-란다우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결정 지연은 경제와 금융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고 상당한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망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흥국이 특히 취약하다”고 경종을 울렸다.

연준은 2% 안팎의 물가상승률과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점진적인 자산 매입 축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용이 살아나는 등 인플레이션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공급망 붕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이체방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준의 입장에 대해 “공격적인 부양책과 경제의 기초 체력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앞당길 것”이라며 “연준이 대응할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인플레이션 시한폭탄이 평균 물가 상승률 7%에 수차례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한 1970년대를 닮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당시 연준의 장이었던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 경기침체를 초래했는데 도이체방크는 이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연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테이퍼링 시점이 연말연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CNBC는 최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근거로 테이퍼링 결정 발표가 늦어질 또는 초기에 나오고, 실행 시점은 올해 후반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연준 인사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로레타 매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랜들 웰스 연준 부의장 등 최소 5명이다.

달러 가치는 계속 추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최근 1년간 7% 이상 하락했다. 약달러는 석유와 식품, 소비재 가격 상승을 유발해 수요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금리 인상을 놓고 연준이 장고에 들어가면서 약달러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바다의 콧물’로 뒤덮인 터키 해변 터키 이스탄불 앞바다가 7일(현지시간) 이른바 ‘바다의 콧물’로 불리는 해안점액에 뒤덮여 있다. 해안점액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배출하는 유기물질로, 점액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각종 세균과 미생물의 숙주가 되어 수면을 덮어 해양생물의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과잉 생산과 산업 폐기물의 통제되지 않은 투기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스탄불/AP연합뉴스

애플 “페이스타임으로 화상회의” iOS 15 공개

영상공유·노이즈 제거 등 기능 대폭 강화, 줌·MS 팀스 대항마 부상

애플이 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팀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부상한 화상회의 서비스에 정면승부를 걸었다.

7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애플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인 ‘세계개발자대회 2021(WWDC 2021)’에서 가을 출시 예정인 새 모바일 운영체제(OS) iOS 15에 추가될 기능을 공개했다.

애플은 기존 화상통화 앱인 페이스타임에 여러 공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쉐어플레이’를 도입했다. 우선 페이스타임을 사용하는 동안 애플뮤직을 실행해 상대방과 음악을 함께 듣고,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동기화해 함께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상대방 목소리와 주변 소음을 구분하는 노이즈 제거 모드와 화면 배경을 흐리게 해주는 인물 모드도 선보였다. 여기에 페이스타임은 지금까지 애플 제품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iOS 15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MS 윈도 기기에서도 브라우저를 통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새 기능



크레이그 페더리히 애플 수석 부사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회사 본사에서 개막한 'WWDC 2021'에서 새 iOS 15를 소개하고 있다. 쿠퍼티노/로이터연합뉴스

도입은 줌과 같은 경쟁 플랫폼을 강하게 의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줌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1% 급증한 9억 562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9억 6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유료 사용자는 1월 100만 명을 돌파한 후 4월 기준 150만 명까지 늘었으며 2분기 예상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S 역시 회계 3분기(1~3월) 매출이 19% 증가한 417억 1000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팀스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팀스 사용자 수는 1억 4500만 명

으로 전년 대비 무려 2배 불어나 애플 페이스타임의 새로운 적수로 부상했다.

아이폰의 알림 기능은 더 세분화했다. 단순히 원하지 않는 알림을 무음 처리하는 방해금지 모드를 넘어 사용자가 원하는 앱과 상대방의 알림만 골라서 받는 ‘포커스 모드’가 적용된다. 이 경우 직장인들은 퇴근 후 직장에서 오는 메시지만 별도로 무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날씨와 지도 앱 기능도 강화했다. 날씨 서비스의 경우 애플이 인수한 인기 앱 ‘다크스카이’에 디자인과 데이터가 추가됐고 지도 앱 역시 새로운 맵핑 데이터가 더해졌다. 특히 버스와 택시 차선,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 세부사항이 지도에 구현됐으며 대중교통의 경우 사용자가 평소 선호하는 노선을 토대로 해당 데이터를 애플워치로 접할 수 있게 했다.

크레이그 페더리히 애플 수석 부사장은 “올해 애플은 아이폰이 일상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만들어 냈다”며 “촬영 환경을 향상했고 지도 앱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는 새로운 탐험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 FDA,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 효능 논란 속 바이오젠 38% 폭등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알츠하이머 신약 사용을 승인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DA는 이날 바이오젠이 일본의 Eisai(Eisai) 제약사와 함께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드유겐유맵(제품명: 에드유헬름·사진)’ 사용을 승인했다.

FDA가 알츠하이머 신약을 승인한 것은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또 이전에 승인한 약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을 위한 것이었지만, 대응 치료제로서 신약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오젠의 신약도 환자의 정신적 쇠퇴를 되돌리는 것은 아니며 이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미국에만 약 600만 명, 전 세계에서 3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에 바이오젠 주가는 이날 38% 폭등한 395.85달러로 마감했다. Eisai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는 56% 뛰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신약이 알츠하이



머 진행 과정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승인제품이라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신약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신약이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며 승인을 권고하지 않았었다. NBC 뉴스는 “수백만 명의 미국 고령층과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결정은 의사와 의학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의 의견 불일치를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바이오·의약 전문 칼럼니스트 맥스 니센은 “FDA의 이번 결정은 큰 실수”라면서 “논란이 있는 치료제를 승인함으로써 FDA의 명성은 물론 미국인의 의료 부담, 더 나아가 신약 연구 수준에도 해를 끼칠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약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약값은 연간 5만 6000달러(약 6230만 원)에 이른다. 이 약은 경증 환자 기준으로 4주마다 주입돼야 하는데 1회 주입당 비용은 4312달러에 달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FBI, 美 송유관 해커에 뜯긴 비트코인 회수

지급액 추적 가상지갑 찾아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당국은 사이버 공격을 당한 송유관 회사가 해커 집단에게 뜯긴 거액의 비트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를 인용,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금액이 약 8200만 달러(약 912억 원) 가까이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피해 금액이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산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뉴욕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 한 호주 출신의 한 사기꾼은 90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펀드를 운용하면서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월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그는 수익률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 형에 처할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운데 뉴욕에 있는 다국적 은행에서 근무하는 금융 전문가 2명이 포함됐던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자국 최대 송유관

회사가 해커에게 비트코인 형태로 뜯긴 거액의 몸값을 절반 이상 되찾아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미국 콜로니얼파이프라인(이하 콜로니얼)은 시스템 복구를 위해 해킹 세력에게 약 44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내줬는데, 미국 당국은 이 중에서 230만 달러에 해당하는 63.7비트코인을 회수했다.

이번 회수작전은 콜로니얼 측의 협조를 받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했다. 회사 측은 해킹 세력의 몸값 지불 요구에 응하면서도 FBI와 긴밀히 협력, 지급한 금액의 추적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받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 아베이트 FBI 부국장은 “당국이 몸값 지불에 사용된 가상지갑을 파악해 자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신용등급 4등급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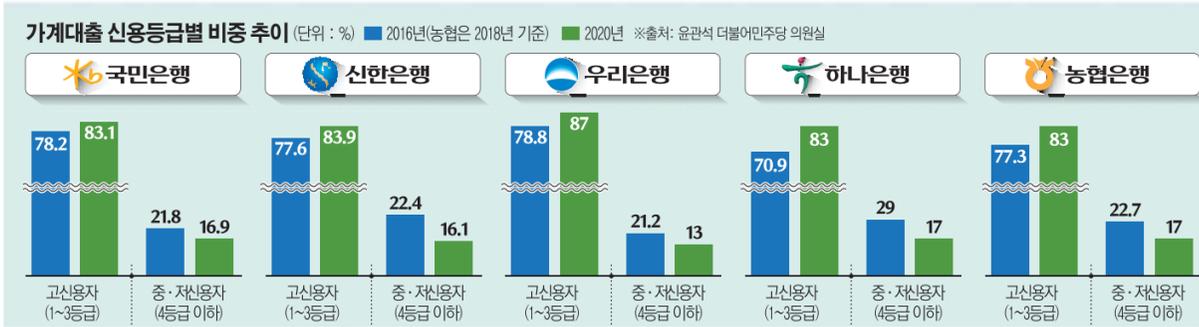
시중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문 잠겼다

고신용자 풀림 현상 심화

국내 시중은행들이 고신용자(신용등급 1~3등급)를 타깃으로 한 대출 영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는 대출 문을 좁혔다.

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율을 줄이고 고신용자 대출의 비율을 늘렸다. 2016년 말 기준 가계자금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자금대출 잔액(123조1397억 원) 중 고신용자(1~3등급)의 대출 잔액(96조3699억 원)은 78%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7년 80.4%, 2018년 81.8%, 2019년 83.7%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83.1%로 소폭 떨어졌다.

고신용자 대출 풀림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2016년 말 기준 하나은행은 전체 가계자금대출 잔액(95조676억 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 잔액(67조4134억 원)은 70.9%를 차지했다. 이 비



인터넷처럼 당국 제동 없어 하나 5년간 12%p 최대폭 감소 당기순이익은 수천억 상승 곡선

올은 2017년 74.6%, 2018년 76.3%, 2019년 79.6%, 지난해 83%로 꾸준히 상승했다. 5년 동안 고신용자 대출 비율이 12%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은행의 전체 가계자금대출 잔액(102조5233억 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 잔액(80조8137억 원)은 78.8%를 차지했

다. 이 비율은 2017년 81%, 2018년 82.9%, 2019년 84.6%, 지난해 87%를 기록하며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2016년 말 신한은행의 전체 가계자금대출 잔액(93조6284억 원) 중 고신용자 대출 잔액(72조7150억 원)은 77.6%였다. 이 비율은 2017년 68.9%로 떨어졌다가 2018년 79.8%로 대폭 올라 2019년 81.1%, 지난해 83.9% 등 꾸준히 오름세다. 농협은행은 2018년 말 기준 가계자금대출 잔액(102조9224억 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 잔액(79조6457억 원)은 77.3%였다. 이 비율은 2019년 80.6%, 지

난해 83.9%로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신용자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고 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현상과 맞물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들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문턱을 높이는 동안 당기순이익은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643억 원에서 지난해 2조2982억 원,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조9403억 원에서 2조778억 원으로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1조3872억 원에서 2조101억 원으로, 우리은행은 1조1350억 원에서 1조3632억 원으로 4년 사이 당기순이익을 수천억 원 늘렸다. 농협은행은 2018년부터

지난해 1조2189억 원에서 1조3707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 집중하러 이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오는 2023년 말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의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인가를 해준 거라 목적에 맞게 확대하라는 취지”라며 “시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처럼(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특정 비율을 정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박승오 하나은행 부행장(오른쪽)과 이윤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하나銀 '해외건설공사 공동보증'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MOU

하나은행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공동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3대 건설관련 공제조합 중 하나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1996년 설립된 특수목적공제조합으로 건설산업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공제(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해외보증사업관련 직접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기존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담보로 국내 은행이 해외사업장에 보증서를 재발급하는 간접 방식이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하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앞 SWIFT 전문 발송을 통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화된 보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하나은행은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해외 보증서 발급 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해외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공유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여신기획혁신 관계자는 “최근 폭력, 조력발전 등 ESG관련 해외건설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없던 일' 된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군...선임 더 늦어진다

금융 인사이트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보군이 '인선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는 이번 주에 새 금감원장이 발표될 것이라 기대감이 형성됐다. 윤석현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지도 한 달이 지난 만큼, 사모펀드 사태 뒷수습 등 공석(空席)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로 손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이전에는 금감원장을 임명할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수와 원 교수가

이상복 교수 과거 기고문서 금융감독 업무 의문 제기 원승연 교수 금융사와 대척점 우려...“새 후보군 물색”



이상복 서강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오�히려 금감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한 언론사 기고에서 금감원의 금융감독 업무 담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금감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간 기구가 아닌 공법상의 영조물법인이기 때문”이라며 “금융감독이라는 국가의 본질적인 중요 과제를 영조물법인에 담당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라고 서술 한 바 있다.

원 교수의 경우 금감원 노조의 교수 출신 반발과 금융위 내부적으로 금감원장 적임자라고 평가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현 전 원장이 키코(KIKO) 사태 재조사 등으로 금융회사와 대척점에 있었는데 원 교수 역시 윤 전 원장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다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유력 후보가 제외되고 다시 후보군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기 금감원장 후보군이 어떻게 다시 압축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선임 원장은 감독 방향 설정 등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성보다 내부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정권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새 금감원장이 감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인력 감축 등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 외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초 금감원장 후보에는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김종오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롯해 손상호 전 한국금융원장, 정석우 고대 경영학과 교수,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최운열 전 국회의원, 정재욱 KDB생명 사장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씨티은행 인수의향 금융사들, 통매수·부분매수 의사 타진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매각에 나선 한국 씨티은행에 정식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금융사들이 4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이 이사회를 연 지난 3일까지 정식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금융사가 4곳 이상이다. 이들은 전체 인수와 부분 인수 등 다양한 인수방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씨티은행은 다음달까지 전체 매각, 부분 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

지방안 가운데 어떤 ‘출구전략’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씨티은행 유명순 행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CEO 메시지’에서 “다수의 금융회사가 예비적 인수 의향을 밝혀 해당 금융사들과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한 뒤 보다 진전된 협상을 위해 정식 인수의향서를 낼 것을 요청했다”며 “지난 3일 현재 ‘복수의 금융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의향서를 낸 금융사들 가운데는 소비자금융 사업 ‘전체 인수’를 희망한 곳도 포함됐다. 다만, 전체 인수를 할 경우 전체 소비자금융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씨티은행의 전체 임직원 3500명 중 소매금융 부문 임직원은 2500명(영업점 직원 939명 포함)이다.

복수의 금융사들은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팔리지 않는 나머지 사업부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씨티은행은 ‘전체 매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부분 매각과 단계적 폐지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달 중 ‘통매수’와 ‘부분 매각 및 단계적 폐지’ 방안 등 출구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서민금융 재원 출연, 가계대출 전 금융사로 확대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서

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13%를 차감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은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도 제외된다. 가령 근로자

햇살론이나 햇살론플러스 등이 그 예다.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증이용출연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를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KT는 AI로 교통을 제어하는 C-ITS 서비스로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로로 도시를 바꾸다



구급요원 아저씨, 감사합니다!

KT-C-ITS의 '구급차량우선신호서비스'는 빠른 이동이 필수적인 구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여 원차이송시간을 줄여줍니다.
 제주도에서 구급차이동시간을 2분 30초 단축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전국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88-0114

〈도심항공교통〉

〈한화솔루션 대표〉

한화, UAM 밸류체인 강화 '김동관 표' 신사업 탄력

한화솔루션, 항공소재 공급 추진
부품 성형공정 등 인재 확보 나서

한화시스템, UAM 인프라 구축
수직이착륙 에어택시 개발 박차

한화가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김동관 표' 미래 사업의 실현을 앞두고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은 항공용 복합재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UAM와 관련해 에어택시 등 항공기체에 첨단소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은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GMT),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LWRT),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SMC) 등 자동차의 경량화를 겨냥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미래 도심공항(Vertiport) 인프라.

사진제공 한화시스템

을 보유한 만큼, 항공기체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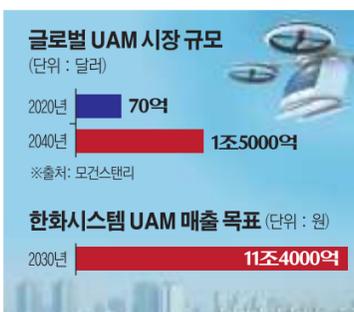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UAM 사업이 전도유망한 만큼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른 소재기업들도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 복합재료 항공부품을 설계하는 '항공부품설계', 항공기 복합재료 부품 성형해석을 맡는 '항공성형해석', 항공용 복합재 부품 성형 공정을

개발하는 '항공성형기술개발' 등 분야다.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 주도로 UAM을 신사업으로 꼽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지난해 70억 달러(약 7조 9000억 원)에서 2040년 1조5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에서 UAM 사업을 이끄는 계열사는 한화시스템이다. 2030년 UAM 관



련 매출 목표를 11조4000억 원으로 잡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영국 UAM 인프라 전문 기업 스카이포츠(Skyports)와 '에어택시' 인프라 개발 기술을 돕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스카이포츠는 에어택시를 타고 내리는 도심공항(Vertiport)을 만드는 회사다. 2019년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 도심에 에어택시용 시범 도심공항을 만들었다. 실제 운영을 위해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 에어택시 운항 허가·인증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미국의 개인 항공기(PAV) 전문 기업 오버에어(Overair)와 손잡고 에어택시 기체 '버터플라이(Butterfly)'를 개발하고 있다. 버터플라이는 전기식 수직이착륙기(eVTOL) 방식으로 운영된다. 헬리콥터보다 조용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에 기체 개발을 마치고, 2025년엔 국내에서 서울-김포 노선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10일부터 3일간 서울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 2021)'에 참가해 UAM 관련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스카이포츠와 구축할 에어택시 도심 공항 인프라와 서비스 청사진과 오버에어와 함께 중인 버터플라이의 실물 크기 모형을 선보인다.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에어택시 모바일 앱(App)을 통한 예약을 체험하고 현재 교통 시간과 한화시스템 에어택시 '버터플라이'를 탑승한 소요시간을 비교·확인하는 체험도 제공한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신제품 티저 공개

삼성, 카메라로 '소니·애플' 잡는다

0.7μm 픽셀 활용 5000만 화소
시장 점유율 1위 소니 추격 박차
갤럭시폰 탑재 애플 견제 나서



삼성 아이소셀 신제품 티저 영상. 출처 삼성 아이소셀 트위터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신제품을 오는 10일 공개한다. 이미지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영상 정보)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다.

이 시장 2위인 삼성전자는 1위 소니를 따라잡고, 진화한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시리즈로 애플 아이폰도 겨냥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8일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18초 분량의 아이소셀 신제품 티저 영상을 첨부한 초대장을 공개했다. 삼성은 초대장에 "당신은 멋진 카메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2021년 6월 10일"이라고 썼다. 업계에선 0.7μm(1마이크로미터=

μm) 픽셀을 활용한 5000만 화소 아이소셀 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한다. 0.7μm는 0.8μm 픽셀을 이용할 때보다 이미지센서의 크기를 최대 15% 줄인다. 이를 통해 카메라 모듈의 높이도 최대 10% 낮출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업계에서 처음으로 0.7μm 화소 이미지센서를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제품군을 1억800만 화소, 6400만 화소, 4800만 화소, 3200만 화소까지 4종류 늘렸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초광각과 폴디드 줌을 지원하는 4800만 화소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5000만 화소 이미지센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제품군 역시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19.8% 점유율로 소니(45.1%)에 25.3%포인트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2019년 30.4%포인트 격차와 비교하면 5.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올해는 격차가 10%포인트대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부회장)는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픽셀 기술 차별화와 공급 역량 강화로 이미지센서 사업 1등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이미지센서 시장은 커지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TSR은 2024년 시장 규모가 249억 달러(약 27조7000억 원)로 올해(204억 달러) 대비 22.1%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화소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송영록 기자 syr@



기아 준중형 SUV 신형 스포티지 '그래비티' 모델.

사진제공 기아

이름 빼고 다 바꾼 '5세대 스포티지'

기아, 내·외장 디자인 첫 공개
차별화 모델 '그래비티'도 선포

기아가 준중형 SUV 신형 스포티지의 내·외장 디자인을 8일 처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신형 스포티지는 2015년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5세대 모델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실내 공간을 갖춤으로써 기아의 새로운 브랜드 방향성인 '영감을 주는 움직임'을 전달하고자 했다.

신형 스포티지의 외관은 자연의 역동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도전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존재감을 강조했다.

차량 전면은 블랙 컬러의 테크니컬 패턴을 적용한 타이거 노즈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를 연결해 당당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후

면은 날렵하고 와이드한 솔더에 좌우로 연결된 수평형 가니쉬와 리어램프를 통해 심플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기아는 이날 신형 스포티지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도 공개했다. 그래비티는 볼륨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비롯해 한층 단단한 인상의 전·후면 범퍼, 블랙 유광의 도어 가니쉬, 상향된 루프랙 등을 통해 강인한 인상을 구현했다.

기아는 신형 스포티지에 12.3인치 계기반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부드럽게 곡면으로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국내 준중형 SUV 최초로 적용했다. 카림 하비브 기아디자인담당 전무는 "이번 신형 스포티지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진보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실내 공간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SUV로 완성했다"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SK하이닉스, 2조 손실說 '지라시' 유포자 수사 의뢰

SK하이닉스가 대규모 D램 품질 불량으로 2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소위 '지라시' (사실 정보지)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SK하이닉스는 8일 "D램 제품 불량 이슈와 관련해 '2조 원 손실' 등 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사법당국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밝혔다.

고소장 내용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가 포함됐다. 회사 측은 "악의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온라인 채널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면 회사는 좌시하지 않고 수사 의뢰하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삼성 "1000단 낸드 시대 선도할 것"

송재혁 부사장 뉴스룸 기고문

삼성전자가 고적층 V낸드플래시 기술로 미래 낸드 시장을 주도해나간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7세대 V낸드를 출시할 예정이고, 현재 200단이 넘는 8세대 V낸드 기술도 확보했다. 향후에는 1000단 낸드 시대도 선도한다는 포부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장 송재혁 부사장은 8일 삼성전자 뉴스룸 기고문에서 "업계 최소 셀 사이즈의 7세대 V낸드가 적용된 소비자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제품이 올해 하반기에 첫 출시가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부사장은 7세대 V낸드 적용 SSD가 "6세대 대비 한층 강화된 성능으로 3D 모델링, 영상편집 등 대용량 워크로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환경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데이터센터용 SSD에도 7세대 V낸드를 빠르게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200단이 넘는 8세대 V낸드 동작 칩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적기에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1000단 이상 V낸드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송 부사장은 "평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오랜 연구 끝에 2013년 첫 V낸드를 선보였듯이 3차원 스케일링 기술을 통해 언젠가 마주하게 될 높이의 한계를 가장 먼저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1000단 V낸드 시대에도 삼성전자의 V낸드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의 신뢰성을 갖는 제품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엔솔, 호주 니켈·코발트 제련기업 지분 인수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하는 호주 QPM의 유상증자에 약 120억 원을 투자해 지분 7.5%를 인수했다고 8일 밝혔다.

QPM은 2007년 설립된 제련 전문 기업이다. 100%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 'TECH(Townsville Energy Chemicals Hub) 프로젝트'는 2023년 하반기부터 친환경 신규 공법을 적용한 전기차 배터리용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를 생산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지분 인수와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을 통해 2023년 말부터 10년간 매년 7000톤(t)의 니켈과 700톤의 코발트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른 배터리 핵심 원재료 수급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K배터리 3사, 차세대 혁신 기술 '진검승부'

'인터배터리 2021' 개막

LG엔솔, 4원계 배터리 업계 첫선
SK이노, 열 확산 억제 기술 소개
삼성SDI '600km 주행' 제품 전시



LG에너지솔루션 전시회 관계자들이 초소형 원통형 배터리(왼쪽)와 파우치형 배터리인 롱셀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K배터리 3사가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과 안전성을 뽐낸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는 9일부터 1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1'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인터배터리는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3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교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고체 전지와 고에너지 밀도의 경량 리튬황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제품을 선보인다.

무선 이어폰용 초소형 원통형 셀과 버튼 셀(Button Cell),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16%, 주행거리가 20% 이상 늘어나는 '롱셀(Long Cell)', 단일 팩 기준 세계 최대 용량을 구현한 RESU16H Prime(16kWh) 등도 전시한다.

업계 최초로 알루미늄을 첨가한 4원계 배터리 'NCMA', '실리콘 옥사이드(산화규소) 음극재',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등 혁신 제품과 '라미&스택(Lami

& Stack)', 롱셀(Long Cell Design)'을 포함한 공정 혁신도 볼 수 있다.

지난해보다 1.6배 더 큰 360㎡ 규모로 부스를 구성한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배터리를 장착한 완성차 업체 자동차들을 배치했다. 아이오닉5에는 니켈 비중을 높인 NCM8 배터리가 들어간다. NCM8은 니켈의 비중을 80%로 높이고 값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줄인 제품이다. 기아 EV6 모델도 3D 영상으로 소개한다. 부스 전면 중

양에는 포드 F-150을 전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시승하고 만족감을 표했던 F-150에는 NCM9이 탑재된다.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 제조한 분리막과 배터리 제조기법인 'Z폴딩' 등도 선보인다. 열 확산을 막는 억제력을 갖춘 배터리 팩 기술도 소개한다. 1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 기술과,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차세대 양극재·음극재 기술을 비롯해 배터리 내부 공간 효율 극대화 모듈 기술도 전시한다.

삼성SDI는 '배터리와 함께하는 삶의 생생한 순간들(Live·Vibrant·Moments)'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구성했다.

니켈 함량 88% 이상의 하이니켈 기술을 적용한 Gen.5 배터리를 전시한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삼성SDI의 배터리가 적용된 BMW의 전기차 2종과 우편배달용 전기차도 전시한다.

그밖에 풀더블론, 무선이어폰, 전동공구 등에 적용되는 배터리와 ESS·E-Mobility용 배터리, e 스쿠터용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등도 선보인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강철호 대표

박종환 대표

현대중공업그룹 임원 인사

강철호 현대로보틱스 신임 대표

박종환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임 대표

현대중공업그룹이 일부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로보틱스 새 대표에 강철호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내정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에는 박종환 한국조선해양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철호 신임 현대로보틱스 대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기업공개를 총괄했으며,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종환 신임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는 그룹 자산운영 책임자로 일해 왔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는 현대중공업 박진상 수석과 현대삼호중공업 박서린 부장이 각각 상무로 신규 선임되었다.

이주혜 기자 winjh@

가보니 마곡 LG디스플레이 전시장

스마트베드서 리모콘 누르자 투명화면에 생활정보 '좌르륵'

실내외 11개 체험공간 마련
벤더블OLED 등 혁신 총집합
디스플레이 산업 한눈에 조망



스마트베드에 부착된 55인치 투명 OLED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의 무대가 넓어지고 있다. 흔히 떠올리는 TV용이라는 틀을 벗어나 재택근무, 홈트(집에서 하는 운동), 게이밍 환경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주 찾아가는 식당과 가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까지, 디스플레이 영역 확장은 '집 밖'에서도 진행 중이다.

8일 찾은 서울강서구 마곡 LG디스플레이 전시장은 이러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11개의 체험 공간을 '실내(인도어)'와 '실외(아웃도어)'로 구분해 디스플레이의 가지각색 쓰임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사의 강점을 압축해둔 공간이다 보니, 투명·벤더블(휘는) 등 폼팩터 변형을 기반으로 한 혁신 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55인치 투명 OLED가 부착된 스마트베드가 대표적이다. 리모컨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나오고 들어가게 조정할 수 있다. 기상하자마자 버튼 하나만 누르면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날씨와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디스플레이 크기를 키우면 자리에서 엉덩이 한 번 떼지 않고 TV 시청까지 할 수 있다.

실외 체험 공간에서도 투명 OLED를 활용한 구성이 눈에 띄었다. 입식 식당 바를 구현해놓은 공간엔 움직일 수 있는 투명 OLED가 부착됐다. 손님들은 굳이 종업원을 부를 필요가 없고, 투명 OLED를 터치해 주문은 물론 계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투명 OLED가 지하철 창문을 대신

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날씨 정보나 노선도, 광고까지 띄울 수 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과 선전 지역 지하철에 세계 최초로 공급해 눈길을 끌었던 그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지하철 공급 당시, OLED의 신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라며 "추후 적용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벤더블 기술로는 게이밍 제품의 몰입감을 극적으로 높였다. 게이밍존 한 가운데 위치한 48인치 벤더블 TV로 운전 게임을 실행해봤다. 속도를 한창 내다 커브를 돌자 TV 양 끝부분이 저절로 꺾였다. 소리가 안쪽으로 모이며 실제로 운전하는 것 같은 생동감을 줬다. 별도 스피커 없이 화면에서 소리가 나는 CSO(필름 시네마틱 사운드 OLED) 기능도 탑재됐다.

LG디스플레이는 생활로 자리잡은 비대면 환경이 OLED 영역 확장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보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존 88, 77, 65, 55, 48인치 외에 83인치 OLED 패널을 새롭게 양산하기 시작했고, 향후 20~30인치대 중형 크기까지 제품군을 늘릴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목표 아래 TV뿐 아니라 게이밍, 개인용 디스플레이 등 OLED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노우리 기자 we1228@

www.kwnews.co.kr

강원일보 구독자 100만 돌파!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보는

江原日報 X NAVER

강원일보 창간 76년,
네이버 모바일 뉴스채널에 입점해 구독자 1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배민도 '1주문 1배달' 단건 배달 경쟁 불 붙었다

앱 개편 '배민1' 시작... 먼저 도입 쿠팡이츠 점유율 10배 ↑
배달비 무료·인하 마케팅, 출혈경쟁 소비자·점주 전가 우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이 11년 만에 단건 배달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러한 '출혈 경쟁'이 결국 소비자와 점주에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우려도 나온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앱 홈화



면을 대폭 개편하고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은 서울시 송파구부터 먼저 도입한다. 배민1은 배민 전속 라이더나 부업 커넥트가 주문 한 건을 곧바로 고객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다. 배민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부를 책임지는 셈이다. 서비스 지역도 점차 넓힌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서 배민1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민 앱을 켜면 보이는 홈 화면도 바뀌었다.

배민 관계자는 "7개 주요 서비스를 대형 탭 버튼 형식으로 배치한 새 화면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화면 상단에는 '배달'과 '번쩍배달' 또는 '배민1' 등 버

튼이 자리 잡게 된다.

앱 개편을 통해 배민은 '푸드 슈퍼 앱'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건 배달부터 포장, 장보기, 쇼핑 라이브, 선물하기 등 음식 관련 서비스를 전면 배치한 이유다. 이를 통해 음식 주문부터 식재료 구매, 라이브커머스까지 배민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건 배달을 통해 점유율을 급격히 늘려온 쿠팡이츠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쿠팡이츠는 사업 초기부터 단건 배달을 공략해왔다. 라이더 한 명이 주문 한 건을 배달해야 다음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배달 시간을 30분 안팎으로 줄였다. 배달 속도를 높이고 고객의 호평도 이어졌다. 단시간에 점유율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다. 지난

해 1월 2%대에 불과했던 수도권 내 쿠팡이츠 점유율은 올해 1분기 20% 가까이 뛰어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 점유율이 급상승했고,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서는 배민을 제쳤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배달 앱 1·2위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마케팅 싸움도 격화하고 있다. 배민의 단건 배달 진출을 견제하듯 쿠팡이츠는 '배달비 무료' 정책을 내놨다. 쿠팡이츠는 이달 30일까지 신규 가입자에 매일 배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이에 맞서 배민은 종료 기한이 없는 프로모션에 나섰다. 업계 기존 금액보다 낮았던 배달비와 중개 이용료를 각각 5000원, 1000원으로 낮췄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경쟁의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 앱 간 경쟁이 결국 라이더와 소비자, 식당 점주들에게 부담이 된단 지적이다. 라이더 업계에

선 단건 배달이 속도 경쟁을 부추킨다고 보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단건 배달로 전환하면 그만큼 배달료도 현실화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거리할증을 직선거리로 산정하면서 라이더들의 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 건을 빠르게 수행하려는 또 다른 속도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비자가 높아진 배달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배달료가 낮을지 모르지만, 이는 결국 (음식점) 점주와 고객들이 내는 돈"이라며 "결과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사장님들이 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대원 기자 leedw@

네이버, 제2 사옥에 스타트업 공간 만든다

출범 6주년을 맞은 네이버 D2SF가 제2 사옥에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네이버 D2SF는 8일 네이버밴드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 '네이버 밋 업' 행사를 열고 D2SF의 투자 성과와 네이버의 더 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날 양상환 네이버 D2SF 리더는 "D2SF는 지난 6년간 기술 스타트업이 네이버와 함께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기술 스타트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투자자이자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며 "네이버 실무진들의 까다로운 기술 검증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술 스타트업은 빠르게 가치를 증명하며 성장성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완공을 앞둔 네이버 제2 사옥에 네이버와 기술 스타트업이 함께 실험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라며 "이 공간은 기술 스타트업과 네이버가 다양한 기술을 함께 실험하는 테스트베드이자,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

6년간 스타트업 70곳 투자
교류·협력 통해 성장 지원

조했다.

올해 완공을 앞둔 제2 사옥에는 1개 층 규모로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이 공간에서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함께 실험하고 교류하며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양 리더는 "제2 사옥에 마련될 스타트업 전용 공간은 'Collaboratory'라는 콘셉트 아래 서로 벽을 허문 공간에서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서로가 새로운 자극을 주고받으며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네이버는 D2SF의 6년간 성과도 함께 공개했다.

네이버 D2SF가 6년간 투자한 스타트업은 총 70개로, 투자액은 400억 원에 달한다. 대다수 스타트업은 각 창업했거나, 창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양 리더는 "당장 사업성보다 얼마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이를 어떤 사업영역에 접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네이버 서비스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D2SF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기술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다양한 조직과 스타트업들을 이어주는 '코디네이터'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D2SF가 지난해 818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D2SF에 가장 기대하는 항목 1위가 '네이버와의 교류·협력'이었다.

양 리더는 "일방향적인 지원이 아닌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2 사옥에서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한층 더 깊숙이 교류하면서 빛어낼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기대하고 응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텔레콤은 넥슨·픽셀리티게임즈와 협력해 공동 개발한 VR 게임 '크레이지월드VR'을 오클러스 퀘스트 전용 게임으로 선보였다. 모델이 게임을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 제공 SK텔레콤

SKT, 오클러스 퀘스트 전용 '크레이지월드 VR' 출시 카트라이더 VR로 실감나게 씹씹

SK텔레콤(SKTEL)이 가상현실(VR) 벤처 게임업체인 픽셀리티게임즈와 함께 공동 개발한 '크레이지월드VR'을 오클러스 퀘스트 전용 게임으로 이달 9일 정식 출시한다.

크레이지월드 가상현실은 게임사 넥슨이 '카트라이더'·'크레이지 아케이드' 등 자사 대표 게임 내 캐릭터의 지식재산(IP)을 제공하고, SKT와 픽셀리티게임즈가 공동 투자·개발한 게임이다.

SKT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베타 테스트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글로벌 국가의 게이머 1만 1000여 명이 참여했다. SKT와 픽셀리티게임즈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출시 버전에 새로운 게임 플레이 모드를 추가하는 등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다.

'크레이지월드VR' 출시로 오클러스 퀘스트1 또는 2를 보유한 고객은 다음/배찌 등 넥슨의 게임 캐릭터로 전 세계 게이머들과 함께 사격, 양궁, 테니스, 볼링 등 다양한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크레이지월드 VR의 가장 큰 특징은 게임 속 시간이 현실과 똑같이 흐르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게이머들 간 소통과 경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멀티플레이

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SKT는 "그간 출시된 VR 게임들은 대부분 싱글 플레이 또는 제한적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해 왔으나, 이번 크레이지월드VR 출시를 계기로 본격적인 라이브 VR 게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레이지월드VR은 오클러스 퀘스트5 토어와 원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SKT와 픽셀리티게임즈는 출시를 기념해 9일부터 원스토어에서 오클러스 퀘스트2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크레이지월드VR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한다. 또, 크레이지월드VR 단독 구매 고객에게는 60% 이상 할인된 9900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한편, SKT는 카카오프렌즈(VX)와 공동 개발 중인 '프렌즈 VR월드'도 올 하반기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진수 SKT 메타버스CO(컴퍼니)장은 "크레이지월드VR 출시를 SKT가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게임사와 VR 게임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바이스 유통에 콘텐츠 공급까지 더해 5G 시대 VR 생태계를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데이터·음성요금제 택일, 돈 더 내"

알뜰폰 '최소 사용료 KT만 더 낸다'

▶1면서 계속

이 같은 종량형 산정 방식은 데이터, 음성 사용 규모가 작은 요금제 설계에서 많이 쓰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대가 산정에서 기본 원칙은 종량형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 통신사의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팔아 차액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알뜰폰 업체들은 KT의 최소 사용료 산정 방식에 불만을 품고, 과기정통부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KT만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과기정통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통 업계에서도 KT가 알뜰폰 업계와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에서 불만이 있는 데도 오랜 시간 제도를 유지해 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소기업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공식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불만 의견을 내면 KT와 협의에 나서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T와 달리 알뜰폰 망 의무 제공사업자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매년 SKT와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해 협상을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개별 알뜰폰 사업자와 계약한다. 이 때문에 SKT와 사업자에게는 협상 등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KT와 도매 재가 제공에서 많이 불리하다는 의견을 모아 내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본 뒤 KT와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공서 '키오스크' 구입 때
사용 쉬운 제품 우선 구매

정부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보 접근성이란 개인이 시각·청각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에도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는 공간 높이나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방법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시 국가 기관 등은 키오스크와 같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하나금융그룹은 ESG 실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두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 2030년 60조 ESG 금융지원 및 조달
- 2050년 사업장 탄소배출량 ZERO 달성
- 2050년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스 ZERO



이커머스 재편 대비? 절대강자 없는 '라방'에 화력 집중

이베이 인수결과 따라 지각변동
쿠팡, 본사에 전용 스튜디오 꾸며
네이버, 스튜디오 추가 흥행몰이
CJ스타일 최강자 자리 출사표

이베이코리아 새주인이 신동빈의 롯데와 정용진의 신세계·이마트간 양자 대결로 굳어지면서 이커머스 빅3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 그리고 이베이 인수에 성공하는 기업이 이커머스 업계를 쥐락 펴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사들은 새로운 블루오션인 라이브 커머스(라이브방송·라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4000억 원이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10조 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액 기준 작년 161조 원인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에 비해 아직 미미한 편으로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커머스 업체들은 내다볼 것 없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강자가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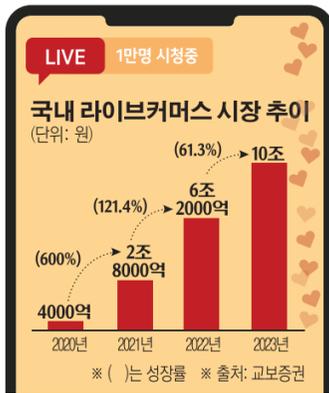
◇쿠팡-네이버-카카오 '라방'으로 교배= 빠른 배송으로 미국 증시에 입성해 국내 온

라인 쇼핑을 뒤흔들고 있는 쿠팡은 2~3년 내에 전국에 콜드체인을 갖춘 물류센터 5~6개를 건립하며 시장 석권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절대강자가 없는 무주공산인 라방 시장에도 손 놓고 있지 않은 않다. 쿠팡은 올해 1월 라이브커머스 '쿠팡 라이브' 시범 방송에 나서며 라방 시장에 발을 내딛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직접 판매 주체로 나서는 방식을 채택한 것과 달리 쿠팡은 판매자 누구나 등록해서 방송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채택해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방법을 택했다. 라방 시장은 대부분 업체가 직접 크리에이터를 섭외해 직매입한 상품을 팔고 있으며, 오픈 방식을 채택한 업체는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의 한개층(13층) 전체를 라이브커머스용 전용 스튜디오 11개로 꾸미며 사업을 강화해 나갔다. 이달 말 완공해 내달부터 방송을 송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커머스는 물론 라이브방송에서도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네이버는 지난해 7월 첫선을 보인 후 4월 중소상공인들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서울 종로에 라이브방송 전용 스튜디오도 개설했다. 이달 중에



역삼동과 홍익대 인근에 추가 호프하고, 연내 부산과 광주 등 지방에도 오픈할 계획이다.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출시 1년이 채 안된 올해 1월 누적 시청 횟수 1억 회를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

이베이 인수전 예비입찰에서 일찌감치 손을 댄 카카오도 우선 라이브 커머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부터 라방에 나선 카카오는 경기도 판교 사옥에 50㎡(약 45평) 크기의 라이브커머스용 스튜디오 1곳을 운영해 하루에 최대 5회 방송을 내보낸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출시 1년 만에 누적 시청자 수는



쿠팡라이브 갈무리.

5000만 명을 돌파하고, 방송 당 거래액은 1억 원에 달한다.

3월에는 카카오톡에 별도의 탭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 카카오는 최근 라방 전용 스튜디오 1개를 추가해 방송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조만간 판교에 스튜디오 1개가 더 늘어난다"면서 "제작 시설이 추가되는 만큼 방송 확대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CJ스타일도 라방에 올인=홈쇼핑 업체에서 디지털로 체질 개선에 나선 CJ

스타일은 지난달 사망까지 바꾸면서 라이브커머스 최강자'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패션과 뷰티, 리빙 등에 특화된 라이브커머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모바일 앱에 '라이브' 메뉴를 만들고 라방 화면을 전면 배치하고, TV 홈쇼핑과 T커머스에 나오는 방송과 모바일 전용을 송출하기로 했다.

허민호 CJ ENM 커머스 부문 대표는 "요즘 여기저기서 모두가 라방을 하는데 누가 전문 업체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저희라고 할 수 있다"면서 "25년 동안 TV 홈쇼핑을 영위하면서 쌓아온 방송 노하우와 플랫폼 역량을 총동원해 라이브커머스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커머스 1세대로 꼽히는 유한익 티몬 이사회 의장도 최근 회사를 떠나며 라이브커머스 기반의 새로운 쇼핑플랫폼 구축을 예고했다. 유 의장은 컨설팅기업 베인앤컴퍼니 출신으로 쿠팡 창업 멤버 출신이다. 현재 200억 원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 의장은 작년 롯데그룹의 티몬 인수설이 흐지부지된 후 곧바로 사퇴와 창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호주로 간 '꼬북칩'

오리온은 꼬북칩(현지명 : 터틀칩스 'TURTLE CHIPS')이 호주 대표 유통업체 '콜스(Coles)'에 입점하며 본격적으로 호주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꼬북칩은 지난해부터 세계 13위 경제대국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오리온은 소비자 평가를 바탕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호주 대형 업체인 콜스에서 판매를 개시하고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호주 전역 442곳으로 꼬북칩 분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콜스 매장 이외에 호주 핵심 유통 채널에도 입점을 확대한다. 진한 초콜릿의 대중적인 맛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검증받은 히트 상품 '꼬북칩 초코츄러스맛' 등을 추가로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꼬북칩 열풍이 서방 국가들로도 확대되고 있다"라며 "해외 바이어들의 러브콜을 지속해서 받는 만큼 맛과 품질력을 더욱 높이고, 수출국을 늘려 한국을 대표하는 'K-스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꼬북칩은 8년의 개발 기간과 100억 원 투자로 2017년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 네덜란드 스낵이다. 2019년 꼬북칩의 제조 설비인 '스낵용 펠릿시트 가공장치'에 대한 특허 등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초 '스낵용 펠릿시트 커팅장치 및 이를 활용한 스낵용 펠릿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추가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인받았다.

김혜지 기자 heyji@

도시락·죽 밀키트도 무인판매

아워홈 '헬로잇박스' 확대
하겐다즈·죽이야기 가세
무인카페 '비트' 100호점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무인 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무인 편의점은 이미 익숙해질 정도로 늘고 있고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창업모델인 코인세탁소도 대부분이 무인으로 운영된다. 무인 커피전문점은 물론 무인 식당, 무인 밀키트 전문점까지 등장했다. 무인 점포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유례 없는 호재를 만났다.

아워홈은 스마트 무인 도시락 서비스 '헬로잇박스(Hello-Eat Box·사진)' 입점을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헬로잇박스'는 냉장 및 냉동 도시락을 포함해 신선식품, 음료, 스낵 등을 판매하는 일종의 자판기다. 아워홈은 최근 구내식당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구내식당 내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헬로잇박스'를 기획했다. 올해까지 대상 점포의 10%까지 도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및 모바일 결제, 각 회사 복지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헬로잇박스' 설치 구역에 전자레인지 등 간편 조리기구를 구비해 편의성도 높였다. 헬로잇박스는 1대당 약 50~100인분의 도시락을 취급할 수 있다.

지난해 풀무원식품이 선보인 무인 식당 '출출키친'도 아워홈의 헬로잇박스와 유사한 형태다. 풀무원식품은 '출출키친'은 신선식품을 운영할 수 있는 무인 판매 플랫폼 '출출박스' 디바이스를 활용, 스마트폰 앱으로 선주문 받고 도시락을 공급하는 스마트 무인 식당 서비스다. 출출박스 1대당 약 80~100인분의 도시락을 취급하며, 단체 주문과 개인 주문이 모두 가능해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무인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하겐다즈는 무인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쇼핑몰,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아이스크림 자판기 120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형태 자판기로 미니컵 5종, 싱글바 5종, 크리스피 샌드위치 1종 등 인기 품목을 판매한다.

GS25는 계산대 없는 미래형 무인 편의점 을지스마트점을 최근 오픈했다. 매대 별로 장착된 300여 개의 무게 감지 센서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얼마큼 고르는지 감지해 답러닝 스마트 카메라와 함께 고객의 소비 행동을 학습하고 규명한다. 물건을 고르고 출입문을 빠져나오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제해주고 고객에게 모바일 영수증을 제공한다.

한식 프랜차이즈 죽이야기도 무인 밀키트전문점 '죽이야기 붕 푸드마켓'을 론칭했다. 죽이야기 붕 푸드마켓에서 판매하는 밀키트는 20여종으로 매월 1종 이상 신메뉴가 출시되고 있다.

커피전문점도 무인시대다. 무인카페의 원조격인 '비트'는 로봇 바리스타로 음료 70여종을 제조한다. 올초 비트는 100호점을 넘어서며 무인화 열풍을 입증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국내 첫 정식수입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롯데마트는 올해 정식 수입이 허용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를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1개 1280원에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콜롬비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보카도 생산 및 수출국이다. 올해 처음 국내 정식 수입이 허용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됐으며 과육이 풍부하고 형미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CU 앱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여행용품?

유통업체들 모바일 역량 강화

설명했다.

온라인 시장 성장 속 모바일 커머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유통업체들이 모바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CU는 멤버십 앱인 포켓CU를 통해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브랜드의 여행용품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CU가 판매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여행용품은 총 10종으로 파우치 세트, 짐벌 셀카봉, 3WAY 목베개, 보조배터리, 방수팩 세트, 캐리어 벨트 등이다. 해당 상품은 6월 말까지 정가가 대비 최대 50% 할인 판매된다.

CU가 포켓CU를 통해 모바일 판매 채널을 구축한 건 2019년이다. 이후 기존 편의점에서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상품들을 판매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CU 관계자는 "고객은 쉽고 편리하게 편의점 쇼핑을 즐길 수 있고 점포에서는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어 1석 2조 효과"라고

모바일 채널 확장은 실제 성과도 내고 있다. 지난달 포켓CU에서 가정의달 효도 선물로 선보인 190만 원대 안마의자는 60여 대가 팔렸다. 이달엔 강원도 감자빵, 옥수수빵 등을 판매했고, 3일 만에 '완판'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T커머스(K쇼핑) 사업자인 KTH는 모바일 역량 강화를 위해 합병을 택했다. KTH는 다음달 1일을 합병기일로 하고 KT엠하우스와 합병해 'KT알파'로 재탄생한다.

KT알파는 T커머스 사업자인 KTH와 모바일 쿠폰 중심 사업자인 KT엠하우스의 ICT 기반 커머스 사업 역량을 결합해 TV홈쇼핑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호 KTH 대표는 "성공적인 합병법인 설립을 통해 기존의 사업적 시너지는 물론 향후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 신규 사업모델 개발할 것"이라며 "시장 확장을 통해 외형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기업가치 100조' LG에너지솔루션 증시 상장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 심사·청약 거쳐 3분기 입성 예정

국내 공모주 역사상 '최대'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절차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의 등장으로 올해 국내 주식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와 공모주 청약을 거쳐 3분기에 상장될 예정이다. IB업계에서는 이 회사의 기업가치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액은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2010년 상장한 삼성생명(4조 8881억 원)을 제치고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공모 기업이 될 전망이다.

LG화학의 전체 사업에서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 이뤄지면 배터리 분야에 대규모 추가 투자 가능성도 점쳐진다.

LG화학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전체 매출 9조6500억 원 중 배터리 사업 부문(LG에너지솔루션)이 43.7%(4조2132억 원)을 차지, 비중 면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LG화학 전체 매출에서 배터리 사업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41.1%로 상승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핵심 사업인 석유·화학 부문의 매출(4조2992억 원·44.6%) 추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 세계적 친환경 정책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차

용 파우치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정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엔 배터리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도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은 2021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전체 투자 규모(총 18조4024억 원)의 80%(15조 원)를 배터리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만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110만 대에서 2025년 420만 대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40%대 증가' 흐름도 이어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오창공장, 유럽 폴란드공장, 중국 난징공장에 이어 미국 내 증설을 확대해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을 260기가와트(GW)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한 단계 진화한 가치투자 선보일 것"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다름자산운용사 인수 후 사명 바꾸고 새출발 선언



지나해 12월 공모펀드 업계를 떠났던 '가치투자 1세대' 이재원(사진) 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대표가 다름자산운용사를 인수해 새롭게 출발한다. 공모펀드 중심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사모펀드를 통해 '한 단계 진화한 가치투자'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원 전 대표는 전날 다름자산운용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다름자산운용의 사명을 라이프자산운용으로 바꾸고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또 '이재원 키즈'로 불리는 강대권 전 유경PSG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다름자산운용 설립자인 남두우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는다. 남 대표는 이 전 대표의 대학 후배다.

이 전 대표는 1998년 국내 최초의 가치투자펀드 시리즈를 시장에 내놓은 이래 줄곧 가치투자 철학을 지켜온 대표적인 가치투자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동원투신운용자문운용본부장과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거쳐 2006년 한국밸류운용 창립 멤버로 2018년부터 대표를 역임하다 지난해

말 사임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라이프자산운용에서 글로벌 트렌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행동주의 전략을 결합한 신개념 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ESG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저평가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신개념 행동주의 펀드로 이 전 대표의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가치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한투밸류에서는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정통가치투자를 선보였다면 라이프자산운용에서는 사모펀드 중심으로 ESG를 가미한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가치투자를 선보일 것"이라며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내는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모펀드 위기로 인해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투명한 운용으로 신뢰를 받으면서 수익을 내는 어려운 일을 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eom@

'돌아온 外人' 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아 담았다

이달들어 삼성전자 4396억 순매수... D램 수요·가격상승 기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주목 LG화학·SK이노베이션도 사들여

최근 인플레이션 격화에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던 외국인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주식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들어 4월(+3716억 원), 6월(+71억 원)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달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 같은 '팔자' 공세 속에서도 외국인이 6월 들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아 등 대형주였다. 대표적 경기방어주인 통신과 언택트 분야에서도 일부 업종 대표주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상이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아 순매수 톱3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8일까지 HMM을 1771억 원어치나 팔아치웠다. POSCO도 1599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반면 6월 외국인들의 순매수 1~3위는 삼성전자(4396억 원), SK하이닉스(1833억 원), 기아(1721억 원)가 차지했다. 특히 지난 5월 4조 원 넘게 팔았던 삼성전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D램 가격이 기대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 삼성전자의 수익 개선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 3일 자 보고서에서 "(재택 하던

회사원들이 직장으로 돌아오면서 개인용 PC 수요가 기업용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기업용 서버 고객 덕에 3분기 D램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CS는 "D램의 평균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6000원으로 유지했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장은 "그동안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인 이 유가 공급 부족 우려 때문이었고 이는 이미 선반영 됐다"면서 "공급 부족이 오히려 많은 수요 때문이라면 앞으로 추가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2021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8.7배로 현대차의 10.5배보다 낮은 상태다.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대차보다 저평가된 기아차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됐다.

외국인들은 올해 초부터 현대차와 함께 부품주 투자를 줄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우려 등으로 현대차의 회사 실적과 바로 직결되는 현대모비스 비중을 줄여온 셈이다. 올해 2조414억 원 어치를 매도했다.

외국인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경기방

어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23만 원대에 지루하게 옆걸음하다가 저평가 매력과 경기방어주 특성이 함께 부각됐다.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에 급락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사들였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10년간 연평균 20% 성장세를 보이는 등 수출 증가로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 밖에도 카카오, S-Oil, LG화학, 삼성엔지니어링, 효성티앤씨 등도 매수했다.

◇외국인이 사면 수익률 '대박'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2010년 이후 코스피200 종목 중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컸던 상위 20개 종목의 동일기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코스피 200 지수를 상대로 86.1%의 승률과 평균 3.9%의 상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배한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 강도와 상위 종목 수익률 간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 강도가 높은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 환경과 무관하게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다"면서 "수급 불안 상황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 상위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유동성도 꾸준히 신중으로 향하고 있다.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에 따르면 지난 주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7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삼성자산운용 ETF 수익률 '1위'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상장한 코덱스(KODEX) K-미래차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와 KODEX K-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의 수익률이 각각 6.35%와 4.89%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KOSPI) 지수 대비 2.92%p, 1.46%p 높은 기록이다.

지난 5월 25일 상장한 KODEX K-미래차 액티브 ETF와 KODEX K-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는 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테마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KODEX K-미래차 액티브 ETF는 자율주행, 전동화, 친환경 부품 등을 융합한 스

마트 모빌리티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와 접목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개인 순매수 102억6000만 원으로 동시 상장한 8개의 액티브 ETF 중 최초로 개인 순매수 100억 원을 돌파했다. 주요 투자 기업은 기아, 현대차, SK이노베이션 등이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KODEX K-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ETF는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등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모든 친환경 기술과 산업에 투자한다. 씨에스윈드, 삼강엠엔티, OCI 등에 투자하고 있고, 상장 이후 개인은 58억5000만 원 순매수했다. 손영지 기자 eom@

비트코인 위축되자 반등하는 金

위험 회피 수단으로 재조명

한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금값이 다시 반짝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다.

금의 대체재로 거론되는 비트코인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그간 반영되지 못한 수요가 금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 선물은 6.80달러(0.4%) 상승한 1898.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발언에 따른 파장을 소화한 뒤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9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앞서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4조 달러 지출 계획이 인플레이션을

금·비트코인 관련 자산 자금 유입 흐름



※ 가상화폐 관련 자산의 자금유입은 BTC 선물, 신탁펀드 등

※ 출처: 블룸버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기준: 6월 초)

끌어올리고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도 미국에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최근 세계 경기 회복에 인플레이션 신호음이 커지자 미 연준도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금이 수혜를 입는다는 전망이 재주목받는 배경이다. 또 금 시장이 바닥을 다진 만큼,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에도 금이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힘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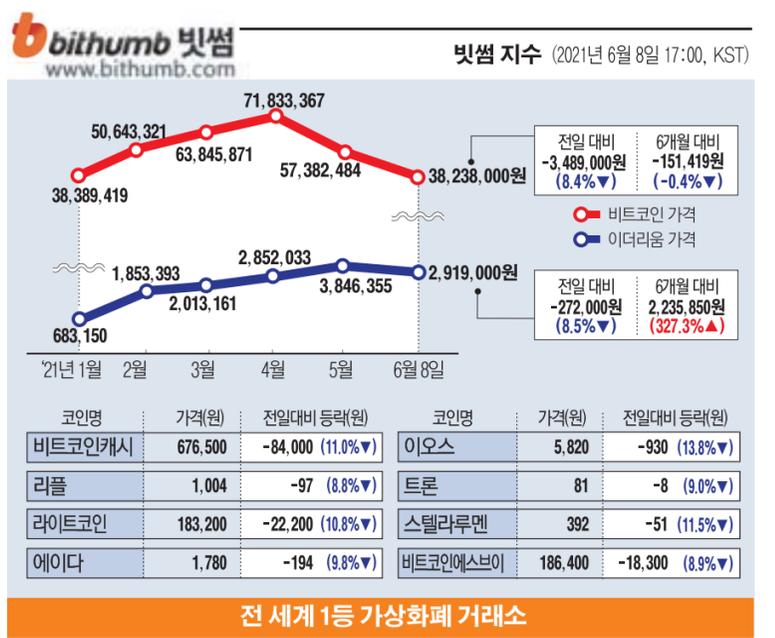
아울러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던 수요도 다시 금으로 돌아오는 분위기다. 최근 비트코인은 4200만 원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시장에선 최근 비트코인의 주춤세를 두고 중국 당국의 규제 우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 규제 발표 이래로 비트코인 관련 자산(선물, ETP, 신탁펀드 등)에선 5억4000만 달러가 재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반영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까지 재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금의 반등에도 증권가는 금 수요 회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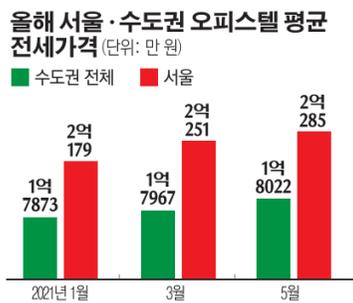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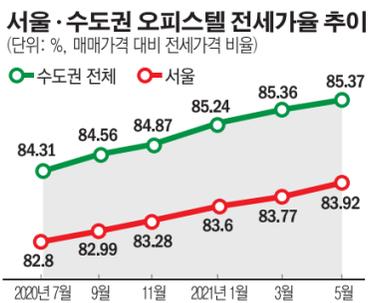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아파트 전세난 불뚱 튼 오피스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들어선 '광고 엘포트 아이파크' 오피스텔에서 지난달 26일 전용면적 21㎡형 매물이 1억7413만 원에 팔렸다. 이보다 앞서 4일 전엔 같은 단지 동일면적 물건이 1억63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비슷한 시기 같은 면적의 오피스텔은 1억77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은 것이다.



서울·수도권 평균 전셋값 1억8022만원 '역대 최고' 신고가 거래 잇따라... 전세가율도 85.37%로 치솟아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자 오피스텔 전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진 탓이다. 이와중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다소 꺾이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뤄졌다.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이처럼 치솟는 건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다시 들쭉이고 있어서다.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올라 한달 전(4월16일 기준·0.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이 0.02% → 0.06%로 확대됐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을 찾기도 쉽지 않자 오피스텔 전세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 수 포함,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도 매수세 약화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엘지여의도 에클라트 전

용 36㎡형은 지난달 1억8000만 원과 1억 8500만 원에 연이어 팔렸지만 비슷한 시기 2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처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달 85.37%까지 치솟았다. 서울은 83.92%에 달한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오피스텔 전셋값이 계속 치솟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도 적지 않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규제도 매수세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계속 오르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대우건설 이르면 8월 본입찰

김형·정항기 사장, 각자 대표체제로 기업가치 제고
중흥·DS네트웍스·사모펀드 관심... "몸값 2조 이상"

대우건설의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매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수전이다자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해 매각 프로세스 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예비입찰을 거쳐 7월 초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 8월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KDB산업은행 산하 M&A실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회계 전문사는 EY한영이 맡는다.

매각 대상 지분은 KD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50.75%로 예상 매각가는 2조 원 안팎이다. 이는 대우건설 시가총액(8일 기준 3조8736억 원)을 고려한 것인데, 최근 고공행진 중인 주가를 감안할 때 총 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매각 절차를 앞두고 대우건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대우건설은 7일 사업담당 김형 대표이사과 재무담당 정항기 대표이사를 각자 대표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 사장은 사모펀드에서 겪은 M&A 경험으로 원매자들과의 협상에서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인수·합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실적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장기적인 플랜을 갖춘 기업을 원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인수기업 리스트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관심을 보이는 곳

은 △DS네트웍스-스카이레이크-IPM 컨소시엄 △중흥그룹 △한앤컴퍼니 등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청(ADIA)과 중국 최대 건설사인 중국건축중공사(CSCE) 등 접촉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원매자 중 낙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S네트웍스는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해외 인프라 투자회사 IPM 등을 끌어들이 대우건설 인수에 나설 태세다. DS네트웍스는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 사업장의 시행을 여러 맡아온 바 있다. 직접 시공까지 도맡아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흥그룹도 대우건설 인수에 적극적이다. 중흥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인 중흥토건의 자금력을 포함해 2조 원의 인수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흥그룹이 해외 사업에 강한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취약한 사업 분야를 메꿀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남양유업을 사들이며 관심을 끈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도 이번 인수를 눈여겨보고 있다.

KDB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대우건설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매자라면 언제든지 (인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인수·합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민간·공공 안 가린다" 녹번2구역 재개발 '속도전'

2-1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주민 동의율 47%
2-2·2-3 '역세권 시프트'도 3분의 2 이상 동의 확보

서울 은평구 녹번동 녹번2구역이 재개발 속도전에 나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녹번2구역 내 2-1구역은 2·4 공급 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도심 복합개발사업) 주민 동의율 47%를 확보했다. 애초 녹번2-1구역은 민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 80%를 얻어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녹번2-1구역은 정부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번2-1구역 관계자는 "이곳은 아주 낡은 동네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민간 재개발보다 공공 정비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도심 복합개발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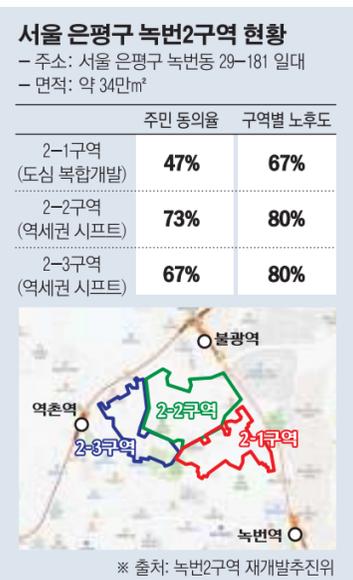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공공이 개발하

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약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녹번2-2구역과 2-3구역은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의 개발 찬성율도 높아 2-2구역은 73%, 2-3구역은 67%의 동의율을 각각 확보했다. 두 곳은 사업 지구지정 기준인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은평구청에 구역지정 접수를 완료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지하철역 반경 350~500m 이내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프트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평구 녹번2구역 주민들이 재개발 사



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는 과거 수차례 재개발 사업이 좌초됐기 때문이다. 녹번2구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6호선 역촌역, 3·6호선 불광역과 맞닿은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실패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용산 캠프킴 공공주택 '산 넘어 산'

토지정화 작업 24개월 이상 소요
사전청약 2023년 이후에나 가능
용산구 "공공주택 대신 상업지역" 정부 계획과 정면충돌, 설득 과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캠프킴 전경. 뉴시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캠프킴' 공공주택 사업이 철회산중에서 빠졌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후 신규 아파트 청약까지 받으려면 2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캠프킴 및 주변 지역 토양 정화' 용역 사전규격(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을 내놨다. 캠프킴은 주한 미군이 2018년까지 주둔하던 군사기지다. 지난해 말 한국에 반환됐다. 국토교통부는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 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공급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캠프킴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현 토지주인 국방부가 땅을 공공주택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줘야 한다. 이에 앞서 오염된 토양도 정화해 주거에 무해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사전 조사 중 캠프킴 부지에서 다이옥신·비소 등 유해 물질을 검출했다. 환경공단이 토양 정화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이들 유해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시간이다. 환경공단은 캠프킴 토

양 정화에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토양 정화가 늦어지면 그만큼 주택 공급도 늦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려면 정화 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돼야 사전청약(본청약에 1~2년 앞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이 줄줄이 2023년 이후로 밀릴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애초 캠프킴 사전청약 일정을 올해 초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캠프킴 공공주택사업 앞에 놓인 또다른 변수는 지역사회 반발이다. 용산구는 최근 캠프킴 일대를 상업·업무·문화 기능을 갖춘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했다. 중앙정부 계획과 정면 충돌하는 구상이다. 입주자 모집 승인 등 인·허가권을 전 지자체와 충돌하면 공공주택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용산구 주민 일부도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해달라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2차' 157가구 이달 분양

한화건설은 부산 북구 덕천2구역을 재건축하는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포레나 부산덕천 2차는 지난해 나흘만에 100% 분양 계약을 마감한 1차 단지 바로 옆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8개동 795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59㎡ 64가구 △74㎡ 93가구로 총 157가구다.

포레나 부산덕천은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되는 초역세권 단지다. 1차 636가구에 이어 2, 3차 단지까지 조성되면 총

1860가구 규모의 한화 포레나 타운이 형성된다.

부산지하철 3호선 속동역 초역세권 단지로 속동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는 덕천역을 이용해 2호선으로도 환승할 수 있다. 인근 만덕에서 해운대 센텀을 연결하는 도심도 도시고속화도로가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뉴코아아울렛, 하나로마트, 부민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있다. 덕성초·덕천중·덕천여중·낙동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속동공원·덕내공원



·낙동강 화명생태공원·금정산 등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고, 체육·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문화빙산센터도 가깝다.

주택 홍보관은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 마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된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박범계에 반기 든 김오수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위법”

대검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 차장관 “법리에 견해차”

김오수(사진) 검찰총장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등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대검은 김 총장이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김 총장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조직개편이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접 수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와 기간 공 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전화 등 방화기도 배치될 수 있는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대검은 이러한 내용이 일선 청 검사들의 우려에 따라 총장 주제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이 박 장관이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한 것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 오르는 등 친정부 편향 인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직제개편, 중간 간부 인사 내용이 김 총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번에 김 총장이 직제개편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도 내부 결집을 꾀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이날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 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도 제안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독도 영토 표기·육일기 사용 중단 촉구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도쿄 올림픽 독도 일본영토 표기 중단과 육일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IOC와 일본 정부에 독도 표기 수정과 육일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

檢 “천문학적 피해 발생” 이동열·윤석호 각각 징역 25년·20년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산물수특례법 관련 803억 5000만 원의 추정 명령도 구형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정금 2855억여 원

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송모(50) 옵티머스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추정금 1조1427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대법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천문학적 인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며 “이 사건으로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분쟁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김중용 기자 deep@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1심서 벌금형

80만 원 선고... 의원직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

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 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중 한 인터

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가 된 상태였다.

검찰은 최 대표가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경연 기자 contest@

Gary Armstrong
Philip Kotler
Marc Oliver Opresnik 지음
정연승·박철·이형재·조성도 옮김
600쪽 | 값 38,000원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러 교수의 최고의 마케팅 솔루션!

“돈 버는 기업들은 마케팅 계획이 다 있구나!”

★★★★★
세계적인
마케팅 입문서
Marketing: An Introduction
14판
번역서 출간

디지털 시대,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읽기
: 고객가치와 고객참여를 통한 관계 구축

고객감동을 실현한 기업에는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목차
 PART 1 마케팅 정의 및 마케팅 프로세스 1 마케팅: 고객가치와 고객참여의 창출 | 2 기업전략과 마케팅전략: 고객참여, 가치,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PART 2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3 마케팅환경의 분석 | 4 마케팅정보의 관리: 고객통찰력 얻기 | 5 소비자와 기업구매자 행동의 이해
 PART 3 고객가치지향적 전략과 믹스의 설계 6 고객가치지향적 마케팅전략: 표적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 7 제품, 서비스, 브랜딩 전략: 고객가치 구축 | 8 신제품 개발: 그리고 PLC의 관리
 9 가격결정: 고객가치의 이해와 포착 | 10 마케팅 경로: 소비자 가치 전달 | 11 소매업과 도매업 | 12 고객참여와 고객가치 커뮤니케이션: 광고와 PR
 13 인적판매와 판매촉진 | 14 다이렉트, 온라인, 소셜 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
 PART 4 마케팅 영역의 확대 15 글로벌 마켓 | 16 지속가능한 마케팅: 사회적 책임과 윤리

교문사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16 | 전화 031-955-6111~4 | 팩스 031-955-0955 | genie@gyomoon.com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 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 yd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 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로,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정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꼭 돌아오겠다”더니 끝내... 피파 “영원한 월드컵 영웅” 애도

‘1971~2021’ 유상철 前 인천 감독 추모 물결

2002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취장암 진단 1년6개월 투병
김병지 축구협 부회장 “30년 동료이자 후배, 감사와 경의”

‘2002년 월드컵 신화’의 주역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취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자 축구계 안팎이 슬픔에 빠졌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유 감독의 영면 소식을 전하며 “당신과 함께 한 그날의 함성과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협회는 유 전 감독의 2002 월드컵 4강 신화 당시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을 올리며 ‘유상철 1971-2021’이라고 적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SNS에 “유상철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영웅이자, 영원한 월드컵 영웅이었다”며 “우리는 그의 가족, 친지, 한국 축구계와 함께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FIFA는 이어 “대한민국의 전 국가대표 미드필더였던 유상철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궈낸 ‘태극전사’의 주역이었다”고 유 전 감독을 기렸다.

인천 구단에 따르면 유 전 감독은 7일 오후 7시께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망했다. 향년 50세. 유 전 감독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사령탑을 맡았던 2019년 10월 황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취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다.

유 전 감독은 투병 중에도 벤치를 지키며 2019년 인천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아냈고,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휘봉을 내려놓고 투병에 전념해왔다.

유 감독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자 국내외 클럽들의 애도 메시지가 이어졌다. 인천 구단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당신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소서”라고 올렸고, 2011년 유 전 감독이 프로 사령탑으로 첫발을 내디딘 팀인 대전하나시티즌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대한축구협회의 인스타그램 추모 포스트를 공유하며 기



도하는 손 모양의 이모티콘과 해시태그 ‘#유상철’로 명복을 빌었고, 인천 감독으로 제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시했다. 포항 스틸러스, 광주 FC, 강원 FC 등의 공식 계정은 대한축구협회의 포스트에 추모 댓글로 동참했다.

유 전 감독이 1999~2000년, 2003~2004년 선수로 활약한 일본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트위터에 “지난해 홈 개막전에서 님산 스타디움에서 승리했을 때 ‘또 여러분과 만나고 싶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 슬픔을 표현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



8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마련된 고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임시분향소에서 유 전 감독의 유니폼을 입은 팬이 조문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식 계정의 추모 메시지. 연합뉴스·트위터 캡처

트넘은 한국어 트위터 계정으로 “우리들의 2002 월드컵 영웅이었던 유상철 감독이 취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의 나이로 별이 되었다”며 추모했다.

그를 사랑했던 동료들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2002 월드컵 대표 골키퍼였던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30년간 함께했던 동료이자 후배 유상철 감독의 영면에 안타깝고 슬픈 소식 남깁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가 걸어온 한국 축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가대표 주장이자 FC서울의 미드

필더인 기성용도 인스타그램에 “한국 축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신 유상철 감독님, 별 때마다 아낌없는 조언과 걱정을 해주셨던 그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추모했다.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뛰었던 구자철(알 가라파)은 인스타그램에 ‘Legend(전설)’라는 문구와 함께 유 전 감독의 사진을 공유했다. 일본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골키퍼 정성룡은 트위터에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하신 유상철 선배님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문선영 기자 moon@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주력할 것”

‘소득주도성장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분주한 취임 1주일
외부 일정 최소화 업무 파악 ... “실패한 정책” 부정적 시각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일 KDI 신입 원장으로 취임한 뒤 일주일째 집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줄 잇는 현황-업무보고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외부 일정이라고 4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전부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소주성)’의 설계자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홍 원장이 대통령 임기 말 국책연구기관의 망명 격인 KDI 수장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실증연구 등 ‘명분’이 부족해 비판받았던 소득주도 성

장의 근거와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용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어젠다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국정 기조의 선순환이 이뤄질 때 달성되는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다.

홍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확산 및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성장과 효율’이라는 전통적인 목표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시각 또한 부상했다”며 “포용·혁신·환경·공정의 가치와 성장·분배의 선순환 등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일 세종시 KDI에서 진행된 취임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개발연구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가치와 세계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

리 창출,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의 당면 문제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주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같은 역효과를 냈다는 점 등에서 홍 원장 취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KDI 연구위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홍 원장 선임 소식이 알려지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패한 소주성의 책임자가 원장이 되다니... KDI마저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 정권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에선 홍 원장의 취임과 관련해 특별한 잡음이 없다. 취임 과정에서 외부의 비판이 많기도 했고, 현재는 원내 현안이 업무보고에 집중돼 있다는 게 KDI 관계자의 전언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인사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김일수 △평생교육국장 정병익 △미래교육추진담당관 이강복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 장미란 △전문대학정책과장 정은경 △전문대학지원과장 김석 △교육복지정책과장 이상돈 △교육기회보장과장 조재익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성배 △인재양성정책과장 이지선 △지방교육정책과장 최기혁 △평생학습정책과장 이혜진 △직업교육정책과장 김세훈 △진로교육정책과장 김성근 △이러닝과장 고영훈 △미래교육전략팀장 이상범 △대학교원지원팀장 정봉출 △동북아교육대책팀장 황지혜 △확원정책팀장 이현미 △교육정보시스템운영팀장 유성석 △그린스마트미래교육팀장 이진우 △교육부 박현정 △사회정책협력관실 라은종 △고등교육정책실 김나현 김정원 엄종홍 장세은 △평생교육국 김성희 정아름 유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연구평가혁신과장 현영목 △연구윤리관리보호과장 이종우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김영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조종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문화교류홍보과장 서문형철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영훈 △기후탄소정책실장 김법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콘텐츠큐레이션센터장 이혜진 △확률정보공유센터장 김혜선 △KESLI 사무국장 김환민 △연구데이터공유센터장 서동민 △데이터기반문제해결연구단장 최광남 △NTIS센터장 신동우 △융합서비스센터장 이석형 △정보시스템운영실장 김규석 ◇국가수퍼컴퓨팅본부 △국가수퍼컴퓨팅사무국장 함재균 △수퍼컴퓨팅인프라센터장 황태영 △수퍼컴퓨팅응용센터장 정민중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장 이혁로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장 윤희준 △계산과학플랫폼센터장 이종숙 △수퍼컴퓨터기술개발센터장 오광진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장 송중석 △가상설계센터장 김명일 △데이터분석본부 △부산출산경남지원장 서성호 △대구경북지원장 이동원 △호남지원장 김은주 △충청지역 지원장 최성배 △수도권지원장 김상우 △지역융합혁신단장 이호신 △기술사업화센터장 최은정 △데이터분석플랫폼센터장 소대섭 △미래기술분석센터장 고병열 △R&D투자분석센터장 원동규 ◇지할 부서 △지능형인프라기술연구단장 성원경 △과학데이터스쿨센터장 안부영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장 최기석

◆프레인글로벌 △PA담당 상무 김동환 △인사총괄 이사 조성운

◆한국정경신문 △IT과학부장 겸 부동산부장(부국장) 강현주

허창수 전경련 회장, 천안함 국가유공자 신은총 하사 위로 방문



허창수(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8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11번째 투병 중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의 자택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허 회장은 “국가인보를 위해 헌신한 신 하사와 같은 젊은 용사들 덕분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안심하고 생업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신 하사와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빠른 쾌유를 빌었다. 사진제공 전경련

포스코인터, 능허대중 외벽에
덩굴성 식물로 ‘그린커튼’ 설치

포스코인터내셔널(사장 주시보·사진 왼쪽 두 번째)이 중학교 외벽에 덩굴성 식물로 만든 ‘그린커튼’을 설치했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그룹 봉사주간인 ‘글로벌 모범 시민워크’에 맞춰 진행됐다.

포스코인터는 8일 오전 인천 연수구 능허대중학교에 다년생 덩굴성 식물로 제작한 그린커튼을 교내 식당과 도서관 외벽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린커튼은 건축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덮어 태양열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 여름철 에너지 효율

부음

▲박이남 씨 별세, 박준석(한미헬스케어 대표이사) 씨 부친상 = 8일, 목포한국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061-270-5440
▲정영모 씨 별세, 정구현·구옥·구학(포천힐스CC 고문)·구용(㈜서울부사장)·구미 씨 부친상, 이현철 씨 장인상 = 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02-2072-2091
▲최중식 씨 별세, 최성국(전 한국경제신문



향상 공법이다. 경관을 개선하고 소음 감소, 공기 정화 효과도 있다.

그린커튼 설치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벽면녹화 제작 사회적기업 브레스키퍼와 함께 진행했다. 김대영 기자 kady@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일본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지자체는 우선 주민 대장을 근거로 접종대상자에게 접종권을 우송한다. 한국에선 없는 절차다. 접종권을 받은 대상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 시스템이 거의 마비 상태인 지자체가 많다. 접종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많으나 예약 자체가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일본의 백신 접종률을 낮게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월 28일 도쿄, 오사카 등 9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발령한 긴급사태선언을 6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최대한 종식한다는 목표다.

도쿄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하루에 300~500명 정도 나온다. 의료전문가들은 도쿄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올림픽 개최는 어렵다고 경고한다.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했으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문제가 커져 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지자체는 우선 주민 대장을 근거로 접종대상자에게 접종권을 우송한다. 한국에선 없는 절차다. 접종권을 받은 대상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 시스템이 거의 마비 상태인 지자체가 많다. 접종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많으나 예약 자체가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일본의 백신 접종률을 낮게 만들고 있다. 6월 7일 기준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로 일본은 6.9%, 한국은 14.7%다. 서버 문제가 커져 16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아예 인터넷 예약 접수를 포기했다.

일본에서는 지자체마다 사용하는 예약 접수 사이트가 다른 것도 큰 문제다. 시스템이 통일돼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제작한 예약 사이트로 시스템이 통일돼 있는데 일본은 각 지자체가 민간업체가 만든 사이트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각 지자체는 인터넷 예약이 잘 안 되므로 상당히 많은 전화를 설치하고 접종 예약에 대응하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예약을 받은 지자체 직원은 한 사람씩 주민 대장과 대조해서 예약을 확정 짓고 있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일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없으니 자료의 디지털화가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주민 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My Number' 제도를 만들어서 신

청하면 일본식 주민 번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의무가 아니므로 25% 이하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예약이 어려워져 보건소 등에 직접 가서 접종 예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장에 가면 예약이 이미 끝났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 불만들이 터진 상태다. 특히 현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접종 예약 기간이라 시스템 문제가 일본의 노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접종 지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5월 24일부터 도쿄와 오사카에 대규모 접종센터를 설치해 특별 접종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이 센터의 예약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

자위대가 주관해서 도쿄에서 하루 1만 명, 오사카에서 하루 5000명을 접종하도록 만든 접종센터이지만, 예약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었다. 고령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가공의 이름과 번호로 예약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언론에 의해서 폭로됐다. 도쿄에서는 5월 17일 예약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서버 접속이 중단

되는 사태가 벌어져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시스템 수정은 어렵지만, 양심적으로 예약을 해 달라고 호소해 큰 혼란에서 벗어난 상태이지만 일본의 IT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현재도 각 지자체의 예약 시스템의 문제는 그대로다. 어느 여성은 접종 예약이 어렵다고 하니 직장을 하루 쉬어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아침부터 하루종일 예약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해 그 허탈감을 신문에 기고했다. 어떤 사람은 필요사항을 몇 번 입력해도 예러가 나서 다른 지역의 주소를 입력했더니 예약을 할 수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예약이 너무 어려워져 아는 공무원에게 예약을 부탁하는 새치기가 지금 일본에서만 연되어 정직하고 질서를 지킨다는 일본인의 국민성이 바뀔까 걱정이 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10만명에 달하는 해외 선수단이나 각국 언론, 각국 올림픽 관계자 등이 입국하는 도쿄올림픽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하에서 적절히 관리할 능력이 일본 정부와 도쿄도에 있는지의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EO 칼럼



김형산
더스윙 대표

스타트업은 지원도 규제도 원치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 발전 계획을 말한다. 당시 최고의 인재들은 국가 경제 부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인, 공무원, 경제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아직도 반세기 전을 사는 경제주체가 있다. 바로 정부와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언론이다. 정부는 각 유망산업 분야에 '지원 및 육성계획'을 발표하며 특정 분야에 자원을 배분하거나 또 다른 분야는 억제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성장에 길든 기성세대들과 이를 대변하는 언론은 새로운 산업의 기회 또는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육성'해야 할 IT 및 서비스업은 기존 제조업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국내 제조업은 특정 분야와 기업에 자원을 몰아줘 한계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해외에 수출을 장려하는 반면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재벌기업들에 공급자 잉여를 몰아줘 장기 설비투자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특혜가 있어도, 소비자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았다. 그 소비자들은 결국 고성장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실질연봉과 집값이 오르며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재화를 더 싸게 생산해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재화가 소비되던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더 싸게 더 좋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서비스는 그 자동차가 국산차인지, 그 차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더욱 더 싸고 좋은 차로 더 좋은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경제환경도 바뀌었다. 성장률은 두 자리대에서 3%대 저성장 국면에 이르렀고, 장하성 교수에 따르면 1996년 대비 2014년에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율이 약 9%포인트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으로 분배된 비율이 그만큼 늘어났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대기업들에 집중돼 국부가 도대

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위기를 맞고 있다. 제조업은 자동화로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 있고, 성장의 열매는 몇몇 대기업에만 배분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실질구매력이 낮아진 소비자들에게 더 싸고 좋은 방식으로 재화를 소비하게 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정부에 의해 육성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체력을 기르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되지만, 웃을 잘 입기 위해서는 타고난 감각과 여러 실험을 통한 노후가 쌓여야 하는 것처럼, 서비스는 투입 대비 산출이 명확하지 않다. 즉, 공무원이 책상에서 연구와 계산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를 정해서 지원하고 규제를 하면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외에서 우버를 수년간 사용하며 그 효용을 아해한 창업가와 '해외탐방'으로 며칠간 사용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전통키보드 공무서비스업계는 규제 로 큰 위기를 맞았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헬멧 착용 의무화, 국내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주행 원칙 등으로 이용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몇몇 소규모 업체들은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매우 상반된 국가지원책도 부지기수다. 전통키보드 생산을 국산화하기 위한 수백억 원의 지원금과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프로젝트가 소위 '눈먼 돈' 사냥꾼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천만 명이 가까운 교통약자들의 편의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안전'이라는 어젠다에 밀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키포드처럼 간단한 것을 중국에서 수입하느냐는 공무원들과, 자동차를 위한 나라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의 전통 키보드에 대한 나쁜 여론을 반영한 탁상행정의 결과다.

지원책과 규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비단 모빌리티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원과 규제 모두를 원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서비스업에서만은 더는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가장 똑똑할 수 없으며, 설령 가장 똑똑하다 하더라도 지원과 규제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란 점을 꼭 이해했으면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명언 "희복은 행복의 근원이다."

국어학자이자 대표작 '겨울'과 시집 '박꽃', '심장의 파편'을 낸 시인, 유명한 '딸각발이'를 쓴 수필가. 그는 국어학 연구와 보급에 평생을 바쳐 우리나라 문법체계 연구의 큰 줄기를 형성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96-1989.

☆ 고사성어/태산불사토양(泰山不辭土壤) 태산은 흙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말. 사소한 의견이나 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자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뜻. 사기(史記) 이사열전(李斯列傳)에 나온다. 초(楚)나라 출신 이사가 진(秦)나라에 와서 재상이 됐다. 당시 조정에서 외국 출신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논의가 진행돼 외국인들을 벼슬에서 내쫓기로 결정하자 이사가 올린 상소문.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고 황하는 작은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는다." 결국 진시황은 외국인 배척법을 포기했고, 벼슬을 유지한 이사는 천하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 시사상식 / 뷰캐(VUCA) 변동성(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함(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말한다. 뷰캐 상황은 기업에 있어 경영혁신, 구조조정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 고운 우리말 / 웃비 한창 내리다가 잠시 그친 비.

☆ 유머 / 신용이란 노인이 말을 사 돌아오는 길에 살펴보니 한 마리는 매우 우수한 걸 알았다. 노인이 되돌아가 상인에게 돈을 더 내자 같이 간 손자가 "그냥 모른 척하면 좋은 말을 싸게 사는 거잖아요"라고 투덜댔다. 노인은 "아니다. 장사에는 신용이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길을 가는데 상인이 뒤쫓아와 한 말. "사실은 말 중 한 놈이 병이 있어 그대로 두면 다같은 병에 걸려 죽게 될 거라 알려 드리러 달려왔습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서지연 금융부/sjy@

금소법 감독규정 '황당한 실수'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감독규정 안에 황당한 실수가 발견됐다. 감독규정 부칙 14조에는 "(중략)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영돼 있는데, 여기서 5호는 방문판매 관련 내용으로, 해당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6호로 표기될 게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항이 바뀌고 밀리다 보니 오기된 상태에서 공표됐고, 이는 추후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때 정정·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실수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안은 절대 작지 않다. 이는

금소법이 '졸속법'으로 지적받는 이유에 충분한 뒷받침이 됐다. 졸속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금소법은 시행 전부터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소법은 첫 발의 10년 만에 시행됐는데 법안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모호한 탓에 금융사들조차

법을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감독규정은 시행 불과 1주일 전에야 나왔고,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시행당일에야 금융사들에 공문으로 발송됐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흑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

장 및 일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업계와 여론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미숙한 입법과정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장의 불멘소리는 여전하다. 소비자 보호와 거래 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는 가이드라인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 야심차게 새 법이 기동됐지만, 곳곳에서 과거의 행정 미숙이 반복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란은 가중된다. 금소법이 졸속 행정에 따른 부작용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오길 바란다. 현장 불만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땀질식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 소통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한국산 'K명품'의 탄생을 기다린다

국내에서 수입 명품 브랜드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달라진 소비 패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내 소비자들의 명품 사랑이 유별나긴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 길이 막히고 억눌린 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국내 명품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한껏 높은 쿼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이들의 '우월적 지위'를 새삼 실감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 아침이면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 앞에 늘어서는 긴 대기줄이 일상이 됐다. 10시 30분 개점하는 백화점 앞엔 새벽부터 줄 서기가 시작된다. 글로벌 3대 브랜드인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에루샤)을 비롯한 일부 브랜드의 '오픈런'(백화점이 문 열자마자 매장으로 직주) 현상 때문이다. 대기 번호를 받아야 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이들 브랜드는 돈이 있어도 원하는 물건을 맘껏 살 수 없는 한정판 소비심리를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

루이비통은 최근 한국 시내면세점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 면세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 면세점에서 중국 보따리상(다이닝)들이 구매했던 제품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데, 이 역시 희소성을 더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려는 고급화 전략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는 루이비통을 대체할 만한 브랜드도 없는 데다 에르메스, 샤넬까지 철수할까 걱정하며 협상을 통해

데스크칼럼

이효영

부국장 겸 유통비이오부장



철수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결정권은 루이비통이 쥐고 있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점이 바로 글로벌 명품을 대체할 만한 K럭셔리 브랜드의 부재다. 국내 경제 규모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한류가 발전하면서 K팝·K드라마·K뷰티 등 'K브랜드'가 선전하고 있지만 'K명품' 브랜드는 아직까지 존재감이 미미하다. 지난 10여년간 전 세계에서 소프트파워를 키워온 한류는 최근 몇 년 사이 방탄소년단(BTS)의 음악과 '기생충', '미나리' 등 영화에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후'를 필두로 한 K뷰티에까지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유독 패션으로 대표되는 'K명품'만은 높은 진입장벽을 절감하고 있다.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의 수지 맨키스 에디터는 몇 년 전 방한해 "한국은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아직 마케팅 실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명품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품 브랜드가 되려면 최고 수준의 품질은 기본이고, 그 위에 오랜 전통, 고유의 스토리, 브랜드 철학을 담아 구매자의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한국이 전 세계 제조업 시장에서 K

반도체와 K배터리 기술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만큼, 이제 럭셔리 명품 시장에서도 새로운 유행 트렌드를 앞장서서 주도해가는 퍼스트무버가 돼야 할 시점이 무르익었다.

K명품 개발에 뛰어드는 시도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올 3월 내놓은 폴 뵘아레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뵘아레(POIRET)'는 세계 시장에서 명품과 어깨를 겨뤄보겠다는 의지로 10년을 준비했다고 한다. 폴 뵘아레는 20세기 초중반까지 샤넬과 경쟁관계였던 프랑스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패션하우스 브랜드다. 샤넬이 고급의상에 단순함과 실용성을 부여해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준 디자이너라면, 뵘아레는 코르셋의 압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디자이너다. 신세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전통과 스토리를 지닌 브랜드의 상표권을 인수했다.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유럽, 미국, 중국 등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다.

프랑스가 오랜 세월 문화 강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부터 문화부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없애 미술, 음악, 문학 등은 물론 대중음악, 패션, 만화, 요리, 서커스에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을 펼친 덕분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와 제품이 주목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K명품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K브랜드 강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눈동자'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hylee@

시설

빨라질 미국 테이퍼링·금리인상, 후폭풍 대비를

미국의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또다시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옐런 장관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다소 높은 금리환경을 가져도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모두에게 플러스"라며, "지난 10년간 저물가와 싸워온 만큼 정상적인 금리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5월 초에도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Fed가 조만간 돈을 죄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나서고 금리인상도 앞당길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빠르면 하반기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15~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주목되는 것은 10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다. Fed 정책 기조의 가장 큰 변수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난달의 4.2%에 이어 5월에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Fed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조기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경제·금융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긴축 발작'의

재연이 우려된다. 과거 2013년 Fed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양적완화의 축소 입장을 밝히면서 신중국의 주식·채권값과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테이퍼링 다음 수순은 금리인상이다. 우리가 강하게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이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리인상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상황이고 보면, 최대 문제는 막대한 가계 빚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기대부채는 1분기말 1765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5%나 불어났다.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을 가중한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을 바탕으로 미국의 적정 단기금리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국채의 적정금리가 1분기의 연 0.07%에서 1.37~1.54%포인트 올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단기 국공채 금리가 그만큼 높아질 경우,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연간 이자가 25조6000억~28조8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220만~250만 원의 추가부담이다.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방어할 적극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국가채무 축소,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의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강화돼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노트북을 열며

곽도흔

정치경제부 차장



장관 후보 '자진사퇴 당한' 해수부

관 후보자로 데려왔기 때문에 자진 사퇴 요구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3명 중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에 가장 만만했다는 결론이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밀수 의혹이 불거졌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장관 후보자로 트집 잡힐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아내가 남편 퇴직 후 먹고살 걱정을 했고 실제 카페 창업했다는 게 이어갔거라하면 이 야깃거리였다. 영국에서 산 도자기는 카페 창업업이었다. 실제로 박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1억8418만 원에 그쳤다. 30년 공직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이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특별 영상인 '더 늦기 전에, 함께해 주세요-토코' 편에서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 공약은?'이라는 질문에 "분해 가능한 친환경 여구로 바꾸는 등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첫손에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 1위 국가임을 언급하며 "해양 쓰레기가 가장 염려된다. 수산물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지구 대통령 공약을 듣고 해양 쓰레기 주무 부처인 해수부에서 허탈해하는 직원이 많았을 것 같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그 여파가 아직 해수부에 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체되는 비운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지만,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났다. 현 정부에서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춘 장관,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해양·항만 전문가인 문성혁 장관이 4년간 해운 재건과 수산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최근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 및 선박(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 확보난으로 물류 분야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HMM의 임시선박 투입이 가능했던 것은 해운 재건의 결과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해양정책을 주관하는 해수부의 위치는 그동안 그리 높지 않았다. 대통령도 인정했듯 앞으로 미래는 해양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를 걱정하는 부처가 아니라 정권의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인정받을 때가 됐다. 다음 대통령은 해수부 활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soqood@

진료실 풍경

"몸조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한마디면 중년 이후 여성의 아픈 원인을 반 이상은 커버할 수 있다. 30년을 진료해 오면서 몸조리를 잘해서 건강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몸조리는 언제나 잘못했다는 서술어와 연결되는 단어다. 아내에게서 몸조리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거나 그렇다고 인정해 줄 일이다.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안 된다. 싸움이 될 테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혈압약이 다 떨어지네요." "벌써 두 달이 됐네요? 시간 참 잘 가지요?" "그러게요. 근데 원장님, 요새 왜 그리 몸이 찌뿌듯하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어질어질해요. 손발도 시리고, 애들은 덩다고 난리인데 전 추워서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해요." "그러세요? 혈압도 재고, 진찰도 해 볼게요." 얼마 후 "혈압도 잘 조절되고, 진찰에서도 이상 없습니다. 말씀하신 증상들은 특별한 게 아니니 걱정 마세요." "애 낳고 몸조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도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에 갔더니 거기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의사인 나는 아내에게 그런 것

몸조리

처럼 환자에게도 토를 달기 어렵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몸조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확고한 믿음을 넘어서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가. 지금까지 40~50년을 살아온 시간들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 오직 잘못된 몸조리만이 원인인가. '몸조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말은 의사에게는 아픈 이유를 설명하는 편리한 수단이고, 환자에게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습관에는 눈을 가린 채 오래전의 일인 몸조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다. 더 나아가 자기 병은 결코 낫는 게 아니라, 그릇된 믿음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몸조리를 잘못하게 만든 시어머니와 남편을 원망하는 근거가 된다.

영국 윌리엄 왕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은 아들 둘에 딸 한 명을 낳았다. 세 번 다 출산 당일 포대기에 산 아이를 안고 하 이힘을 신은 채 찬바람을 맞으며 언론 앞에 섰고, 당일 퇴원하여 궁으로 돌아갔다. 우리로 치면 몸조리를 전혀 안 한 거다. 그럼 지금쯤 케이트 미들턴은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날마다 윌리엄 왕자에게 투덜대며 살고 있으려나.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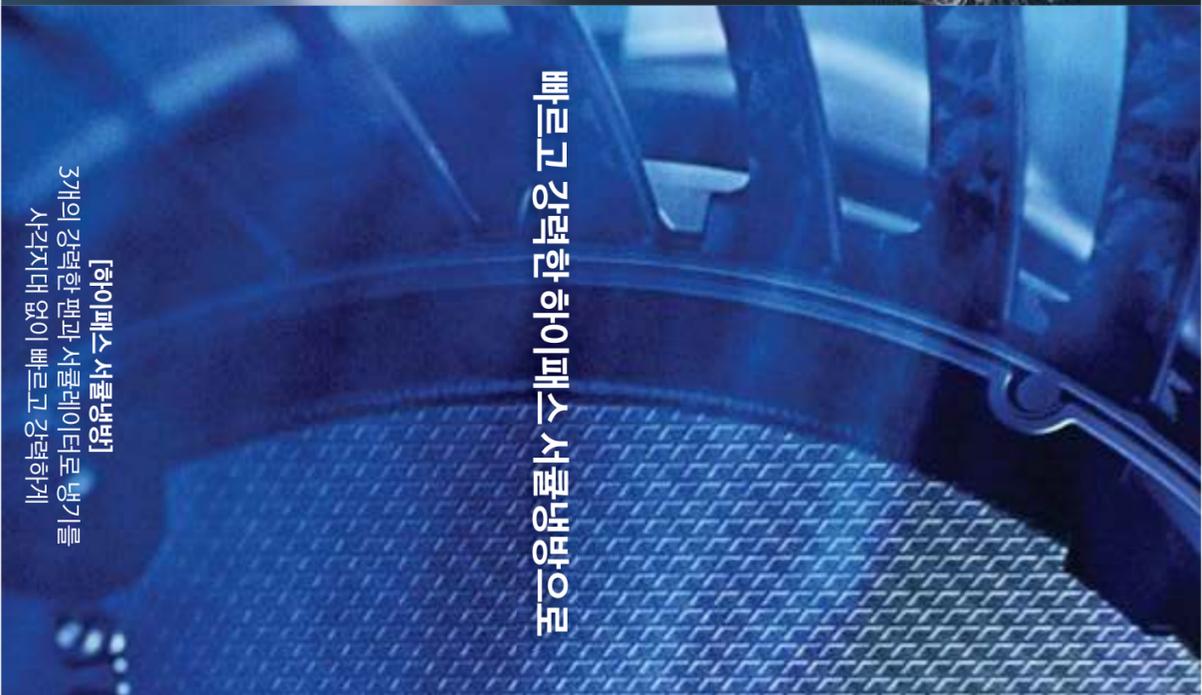
SAMSUNG



그 어떤 더위도 문제 없어



순식간에 시원해질테니까



빠르고 강력한 하이패스 서큐레이션으로

[하이패스 서큐레이션]
3개의 강력한 팬과 서큐레이터로 방기를
사각지대 없이 빠르고 강력하게



기다릴 필요 없는 거, 그게 진짜야

가전을 나답게.

제1국립보건연구원(CDC) 기준 COVID-19 환자는 0.5% 이하의 바이러스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음)

진짜를 가져, 나의 무품
BESPOKE 무품에어컨

